

만유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온 세상 곳곳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29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6월18일 (토) 제 1878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다!

CT, 웬디 왕/앨리스 엘헤이지 설문과 인터뷰 통해 팬데믹 동안 교회를 떠난 교인들 추적 조사

웬디 왕(Wendy Wang)은 가족 연구소(the Institute for Family Studies)의 연구 책임자이자 퓨 리서치 센터의 전 선임연구원이다. 앨리스 엘헤이지(Alyse ElHage)는 가족 연구소 블로그의 편집자이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가족 정책 위원회(North Carolina Family Policy Council)에서 작가이자 연구원으로 17년간 일했다. 이들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를 통해, 공동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역학 조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 신도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사역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한다(Here's Who Stopped Going to Church During the Pandemic: Recent research paints a grim picture for local congregations. But it also highlights 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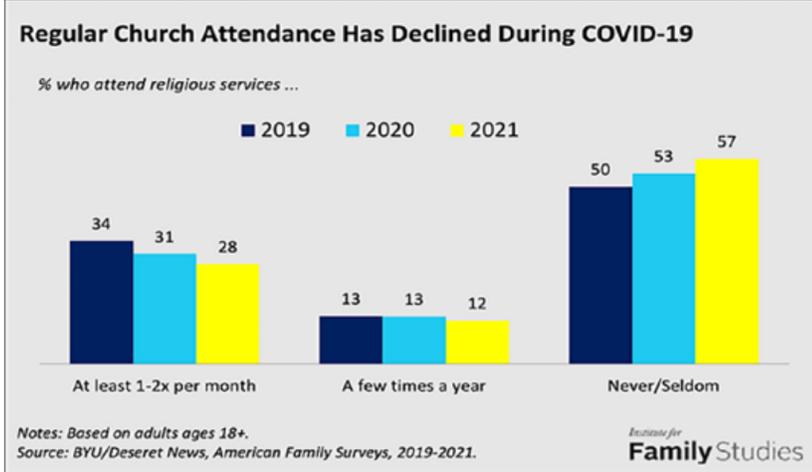
마이크 메쇼(Mike Meshaw)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Grace Church)의 담임목사로 21년간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머물다 떠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에 폐쇄되기 전까지 이 북부주의 교회에 매주 평균 약 220명이 방문했다. 메쇼 목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중단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일주일에 평균 약 150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를 불편해 합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대우행 초기에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중단했지만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가족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성도의 50% 이상이 교회 문을 다시 열도록 강하게 요청 하였습니다." 메쇼 목사는 말했다.

교회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교회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쇼 목사는 "우리 교인들은 여전히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배를 취소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잘 버티고 있지만 특히 최근 급증하는 팬데믹 상황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메쇼 목사는 우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메쇼 목사는 "양성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고 정보가 공개 되면 공포는 괴물처럼 확대되고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할

다. 사람들의 감정이 닮아 없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부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요."

다른 교회들은 출석률 감소 경우 예배를 취소하기도 하지만 안전 수칙에 대한 신도들의 불안을 해결해야 했다.

웨이드 브래드쇼(Wade Bradshaw) 목사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 있는 대형 장로교회 담임목사다. 이 교회는 2020년 3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가을 대면 예배를 재개하였다.

그는 "스트리밍과 함께 시작된 줌(Zoom)예배는 피로감이 있었습니다"라며 교회가 "마

스크 착용에 대한 심각하고 어려운 긴장감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의사는 보수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마스크를 의무화한 입장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브래드쇼 목사는 전반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팬데믹이 장기적으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크 착용에 대한 심각하고 어려운 긴장감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의사는 보수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마스크를 의무화한 입장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한다!

TGC, 작가 사라 E 질스트라가 소개하는 일의 미덕을 가르치는 작은 일과 25가지

긴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코로나로 인해 빚장이 걸렸던 여행 금지가 풀리고, 학원이나 특별 활동을 하는 등등, 분주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TGC 선임 작가인 사라 에코프 질스트라(Sarah Eekhoff Zylstra)는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일의 미덕을 가르치는 작은 일과 25가지를 소개해준다(25 Chores to Teach Kids About the Goodness of Work).

지난 주말, 우리 가족 넷이서 차고 대청소를 했다.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일이었다.

확실히 해 두자. 차고 청소는 꿈쩍한 일일 때가 더 많다. 갓난아기 나 말쑥꾸러기를 데리고 이 일을 한다면, 느긋하지 못하다면, 이 일은 이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소리 지르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사실 남편과 나는 이런 일은 혼자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걸, 그레아 나중에 후회하게 될 잔소리를 안 하게 된다는 걸 겪어 봐서 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우리 넷은 두 시간 동안 쓸고 닦고 정돈하는 일을 함께 했다. 어지럽게 널려 있던 것들을 가지런하게 질서를 잡아 준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함께하는 달

콤한 만족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창조세계의 작은 영역을 제자리로 회복하고 되돌려 놓아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내 친구는 이 일을 얼마나 노련하게 하나면, 가끔 토요일 아침에 이웃 아이들이 그 집에 와서 대청소를 돕기도 한다. 농담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할 때면, 굳이 우리가 하는 일의 선함을 설명해 줄 필요도 없다. 그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도 때로는 적절한 때에 아이들에게 설명을 곁들이면 일의 영광스러운 선하심을 아이들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김동진 목사 4면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8면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치위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과 - 미용성형과 - 산전 및 임신치료

목회자 집중 성경방 2022
대상: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기간: 2022년 7월 10일~8월 15일 (주말/휴일요일만 참여 가능합니다)
시간: 주일(5pm~8:20pm), 월요일(7pm~10:20pm)
방법: Zoom
온라인: 성경학, 성경방 워크북(구독/선박)
등록비: \$100 (Korean ID-No, ID-Place@Gmail)
문의: 1 박성현 전도사(213-220-6729)
주관: 1 생명의사랑교회 LA지부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추천 도서

- 하나님을 말하다 린 켈러 두란노
-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 내 마음도 설교가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발행인 칼럼

숫대도 긴디



김성국 목사 (킨즈장로교회 담임)

한번 즈음 들어보셨거나 인터넷에서도 읽을 수 있는 우스개 이야기이다. 그날 전방부대의 암호는 "지물통-열쇠"였다. 철축 같은 어두운 속에서 야간 순찰하던 신병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홀로 보초병과 맞닥뜨렸다. 보초가 외친다. "손들어! 뒤로 돌아! 자물통!" 당황한 신병은 "열쇠"라는 단어가 순간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도 순발력 있게 대답을 했다. "숫대" 이상한 대답에 적으로 오인한 보초병이 총을 쏘았다. 신병은 죽어가면서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겼다. "숫대도 긴데---" 억울하다. 숫대는 열쇠의 사투리이다. 그러나 어찌랴.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기엔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보초병이 기다리던 정확한 암호는 아니었다.

최근 열흘 동안 열쇠 때문에 몇 차례 해프닝이 있었다. 집 열쇠 때문에 아내가 집에 못 들어간 일, 차 열쇠 때문에 필자가 고속도로 출구 바로 앞에 펼쳐진 위험한 길을 걸어갔다 온 일, 또 필자가 교회 책상에 잘 있는 교회 열쇠를 집에 두고 왔다고 작은 소동을 벌인 일. 지난 열흘 중 아내와 필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권사님이 다급히 물었다. 자기 남편의 열쇠 꾸러미를 못 보셨냐고 필자가 자주 지나가던 길에서 잃어버렸더니 내게 먼저 물은 것이다. 못 보았다고 대답하니 권사님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니 필시 누가 가져갔을 것이라며 상심하셨다. 둘러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짧은 길이기도 권사님과 함께 머물면서 오랫동안 찾은 상황도 시간도 아니었다. 열쇠를 잃은 집사님에 대한 여러 안쓰러움을 가지고 가던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열쇠를 새로 해야 하니 얼마나 귀찮겠는가. 그동안 무슨 일은 없었는가. 그런데 얼마 후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집사님의 열쇠 꾸러미를 찾았다는 것이다. 길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아니다. 그 집사님의 등 뒤에서이다. 평소 여러 열쇠를 한 줄에 매달아 목에 걸고 다니셨는데 그날 그 길에서 그 열쇠들이 집사님의 등 뒤로 가있었던 것을 깜박 잊고 아내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이었다. 믿거나 말거나의 납량특집이 아니다. 믿으시기는 어려워도 실제 이야기이다.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나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적어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어렸을 때 어른들을 따라 목 놓아 불렀던 찬송이 있다. "울어도 못하네 /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 하고 /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 힘써도 못하네 /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 다시 나게 못하니 / 힘써도 못하네 / 참아도 못하네 /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 어찌 아니 죽을가 참아도 못하네 / 믿으면 되겠네 /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영원 삶을 얻으려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 믿으면 된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면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이다. 이 열쇠가 어디 있나 다시 살피자. 다른 것을 믿음의 자리에 두지 말자. "숫대도 긴데---"의 의미 다가 천국 문 앞에서의 나의 소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I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남극 이제 너 마저...!

BBC, 가장 외지고 깨끗한 남극에 내린 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검출된다고 보도

BBC는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이 남극대륙 로스 빙봉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Microplastics found in snow in Antarctica).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문제'가 별개 사안이 아닌 이유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연구위원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벨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말입니다."

이제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설원, 만년설, 빙하 등이 빠르게 녹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에 쌓인 어두운 미세플라스틱이 햇빛을 흡수해 주변 온도를 높일으로써 빙상 면적 감소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블랙카본(탄소를 함유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과 같은 다른 오염 물질이 쌓이면서 히말라야 빙하가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산사태와 눈사태가 일어나고, 빙하호가 넘치는 등 세계 각지 산맥에서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는 점점 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빙하 두께가 급속히 얇아지고 사라지면서 전 세계 산악 지역의 물 공급과 농업도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장 외지고 깨끗한 환경일도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기 쉽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이다.

깨끗한 눈, 빙원, 빙하 등은 햇빛 대부분을 반사한다. 그러나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작은 일을 통해...

(1면에서 계속)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해 보길 바란다.

- 1. 신발 정리. 우리에게 신발을 주시고, 두 발을 주시고, 걷고 뛰고 춤추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 장난감 정돈. 놀이를 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역할놀이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모든 것에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우리 공간을 질서 있게 정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3. 쓰레기 내다 놓기. 우리

사람은 당황하고 좌절하고, 부모는 짜증이 나고, 그걸 목격한 형제는 우쭐할 수 있다. 여유를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고, 터놓고 사과하고, 죄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하고 흘린 물을 닦아라.

- 4. 식탁 차리기. 하나님을 주신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
5. 식탁 치우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 굵도리(방 안벽의 아래 부분) 먼지 훑기. 먼지를 털어내는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굵도리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명한다. 집처럼 느끼게 해 주는 장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것도 주신다. 감사드려라.
7. 옆지른 물 닦기. 옆지른

사람은 당황하고 좌절하고, 부모는 짜증이 나고, 그걸 목격한 형제는 우쭐할 수 있다. 여유를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고, 터놓고 사과하고, 죄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하고 흘린 물을 닦아라.

- 8. 식기 세척하기. 복잡한 기술로 구현된 가전제품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담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9. 식료품 나르기. 농부부터 택배기사와 마트 직원까지, 우리에게 영양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
10. 이불 개기.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왜 침대를 정리해야 하지? 밤이면 다시 헤집어

놓을 자리를 왜? 아마도 가장 좋은 대답은 이걸 거다. 때로는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침대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 11. 침대 밑 청소하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야만 그게 뭔지, 쓸 만한 건지 제대로 알 수 있다.
12. 세탁 옷 개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물질 선물은 옷이었다. 옷으로 덮지 않으면, 털 없는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후하심에 기뻐하라. 우리가 매일 다른 색과 다른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이다!

(4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쉬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블라 한인교회(초교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2. 미국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사본)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5. 추천인(목회자 only)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문의 및 연락처: (440)319-4596 |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022년 8월30일

에쉬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새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근교에 소재한 새한장로교회는 1981년에 설립된 KAPC 소속 교회이며 담임목사님이 34년 시무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지원 요건

- ① 장로교 정규 신학교(M. Div. 이상)를 졸업하신 분
②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③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④ 이중 언어(한국어/영어)가 가능한 분

2. 지원 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기 소개서 (Letter size 3page 이상)
③ 최근 설교 2편(CD, SanDisk or YouTube Link)

3. 서류 제출-이메일로만 받습니다.

kohsehan@gmail.com

4. 서류 제출 마감: 2022년 7월 30일

서류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답해 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el 215-402-9922 www.sehanpa.org
Se Han Presbyterian Church 6 Summit Valley Lane Oreland, PA 19075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다음 소개하는 최근 연구는 그 의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021년 6월, AP 통신은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예배당이 영구 폐쇄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바나 그룹(Barna Group)이 2020년 4월과 5월에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게다가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갤럽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 회원 수는 2020년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미국 가족 조사(American Family Survey)를 사용한 새로운 가족학 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Studies, IFS) 분석은 지난 2년 동안 종교 출석률이 어떻게 심하게 감소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 교인의 비율은 2019년 34%에서 2021년 28%로 6% 감소했다. ('교회', '종교 예배' 및 '예배당'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편, 종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일반 미국인의 비율은 7% 증가했다.

미국 가족 연구를 통해 종교 예배 참석을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얼마나 자주 종교 예배에 참석합니까?' (응답에 종교 예배 참석의 일부로 온라인 예배가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종교 출석률의 감소는 인구 통계에 따라 다르다. 젊거나 나이가 많은 미국인은 중년층보다 출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기혼 성인의 경우에도 더욱 두드러진다. 어린 자녀가 없는 기혼 성인의 약 30%가 2021년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2019년의 40%에서 감소한 수치다.

반면에 정치적 성향은 출석률 감소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보수는 온건파와 진보파보다 먼저 종교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출석률 감소는 세 집단 모두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소득별로 보았을 때에도 출석률 감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인종에 관한 한 결과는 다르다. 자료에 따르면 흑인 미국인들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

보다 교회 출석률이 급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는 흑인 미국인의 45%가 정기적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5% 떨어진 30%로 나타났다. 다른 인종/민족 집단의 감소는 5~6%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톨리에 있는 2000명 규모의 복음주의의 교회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다락방 교회(The Upper Room Church of God in Christ)는 거의 2년 전 7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로 86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윌로 목사인 우든 목사(Patrick L. Wooden, Sr.)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슬로건 중 하나는 '우리는 예배가 위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체온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 자리 띄워 앉기,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한 두 번의 예배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잘 지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비록 교회의 출석률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성도는 질병, 가족의 건강 악화 또는 아직 직접 대면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면 예배에 여전히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전히 직접 모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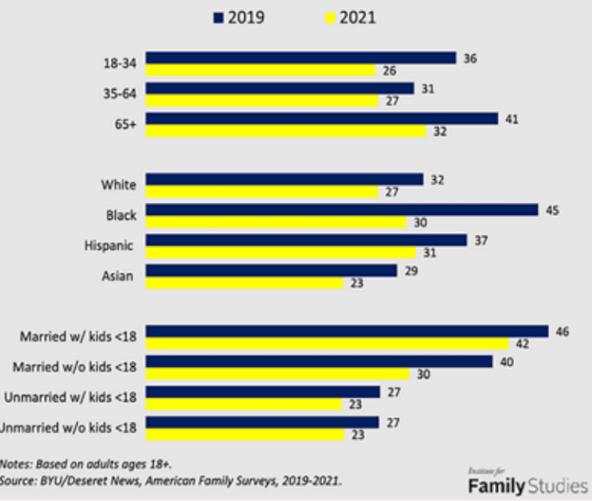
"성도들은 정말로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우든 목사는 말하며 함께 예배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온 방문객들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국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상당수 교회가 대면 예배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든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특정한 시간에 많은 교회가 대응하는 부분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하는

Decline in Church Attendance by Demographics, 2019 and 2021

% who attend religious service at least 1-2x a month



Notes: Based on adults ages 18+.

Source: BYU/Deseret News, American Family Surveys, 2019-2021.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데, 같은 성도들이 목사들의 교회 출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똑같은가요? 저의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이 가능해지면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는 팬데믹이 마침내 끝난 후 교회 출석률이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07~2009년 대공황이 종교 출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전 연구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당시 많은 사람은 경제 위기가 교회 출석률을 높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그런 증가는 없었다. 연구는 또한 금융 위기가 유럽 국가의 종교 출석 수준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메소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교인 감소를 교회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가 교회가 정화되는 쪽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 그 숫자가 적습니다."

메소 목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만큼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심했다.

빈 좌석이 온라인 예배자로 대체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 게다가 대면 상호작용의 부족은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

라 교회 내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교 예배 참석은 더 나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 감소, 자살률 감소, 약물 및 알코올과다 복용 감소와 같은 여러 공중보건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집에 고립되어 있는 온라인 예배는 동일한 수준의 장점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종교를 믿지 않지만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서적 비용을 치른다. 바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 출석을 중단한 응답자는 대면 예배 참석을 중단하지 않은 기독교인에 비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았다.

타일러 밴더웰(Tyler VanderWeele)과 브랜던 케이스(Brendan Case)가 최근 지적했듯이 '예배당의 빈 좌석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핵가족의 건강을 포함한다. 종교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미국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종교적인 미국인들은 비종교적인 미국인들보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더 강한 욕구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예배 참석자의 감소는 공중 보건뿐만 아니라 가정 안정과 인구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든 목사는 "자살, 우울증, 정신적 문제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10면으로 계속)



시론

앤더믹 시대, 찬송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홍난파는 "교향악단이 없는 경성(京城)은 문화시민의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1939년 3월 26일,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교향악단의 첫 공연이 열린 후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시 한반도에는 경성제대와 연희전문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관현악단과 실내악단 정도가 있었지만 정규 편성의 교향악단은 없었기에 당시 지식인들은 솔로 연주자들뿐 아니라 합창단과 관현악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에 접어들어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는 전시동원체제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첫 교향악단은 해방이 된 후 현제명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려교향악단이 출범해 1945년 10월 첫 연주회를 가짐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교회는 한국음악인들의 산실(産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교회에서 음악을 접하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타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강점은 찬양이었다. 서양음악만이 아니라, 국악도 교회가 대중화되는 통로 역할을 상당 부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음악인 중에도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고, 각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악기 연주자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음악문화의 활성화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홍난파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마 이렇게도 말했을 것이다. "음악이 없는 교회는 기독교 문화의 수치이다."라고. 또한 최근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오페라를 쓰고 있던 박재훈 박사도 "교회에 음악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수치스러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교향악단을 그리던 홍난파는 1911년에 새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울밑에서 봉선화'의 원곡인 (예수)라는 찬양을 작곡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또한 미국 유학시 흥사단에 가입(가입번호 266)했지만, 유학 생활의 빈곤과 교통사고로 특별한 활동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신앙과 애국정신 함양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마스크는 아직도 찬송을 부자유스럽게 막고 있다. 예배에서 성가대(찬양대)원들의 입을 마스크가 가로막고 있고, 회중찬양은 목사나 찬양인도자 혼자 부르고 있는 가운데 회중들은 PPT 화면을 보며 눈으로만 따라 하는 모습이 이전 익숙해진 환경이 되었다.

차세대 신앙교육을 말하고, 한인교회의 어려움과 미래를 걱정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진단과 방향과 대책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아니 시급하다. 오늘 시론에서 음악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말씀만큼 중요하고, 다른 신앙활동들의 활동력을 일깨우는 요소인 동시에 동력(原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는 말씀은 오늘 다시 기억되어야 할 메시지이다. 앤더믹으로 전환되어가는 즈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러하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찬송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미 대통령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이 팬데믹 전염병에서 벗어나 독감과도 같은 앤더믹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제, 회중들의 마음에 생동력이 생기고, 입술의 열매인 찬송이 교회를 들뜨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

djlee7777@gmail.com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즈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문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y.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정체성 정치 - Identity Politics” 와 “성정체성 혁명 - Sexual Revolution” 이 성공한 10년 이후의 미국 모습



6월의 큰 행사를 위한 동성애 자랑의 국기, 진보 자랑의 국기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회 -

2015년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이 미 대법원을 통해 통과되기까지 정치적으로 수많은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성공할 수 있기까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정치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 정치”와 “성정체성 혁명”을 미 전역뿐 아니라 글로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바마와 그 행정부가 있었던 백악관은 동성애 로비스트들, 전락가들이 매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회 -

2015년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이 미 대법원을 통해 통과되기까지 정치적으로 수많은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성공할 수 있기까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정치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 정치”와 “성정체성 혁명”을 미 전역뿐 아니라 글로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바마와 그 행정부가 있었던 백악관은 동성애 로비스트들, 전락가들이 매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5년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이 미 대법원을 통해 통과되기까지 정치적으로 수많은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성공할 수 있기까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정치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 정치”와 “성정체성 혁명”을 미 전역뿐 아니라 글로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바마와 그 행정부가 있었던 백악관은 동성애 로비스트들, 전락가들이 매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5년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이 미 대법원을 통해 통과되기까지 정치적으로 수많은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성공할 수 있기까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정치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 정치”와 “성정체성 혁명”을 미 전역뿐 아니라 글로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바마와 그 행정부가 있었던 백악관은 동성애 로비스트들, 전락가들이 매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5년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이 미 대법원을 통해 통과되기까지 정치적으로 수많은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로비스트들의 업적이 성공할 수 있기까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정치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 정치”와 “성정체성 혁명”을 미 전역뿐 아니라 글로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바마와 그 행정부가 있었던 백악관은 동성애 로비스트들, 전락가들이 매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설립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Black Lives Matter (BLM), Antifa 와 반미,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과 손잡은 Flag 들이 자랑스럽게 필러이는 6월입니다.

3.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통해 성명 발표한 동성애

2021년 동성애 자랑의 달을 축하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아래처럼 동성애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스토리, 너의 리더십이고 너희는 감동자야. (삭제)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네가 뭘 했든, 지금 계속하고 있든, 앞으로 할 것까지...”

2022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문에는 가장 유행을 타는 동성애자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듯 왜곡된 연설을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은 성경대



2013년 대통령연설: “우리의 동성애 형제자매들이 평등해지는 것이 곧 진짜 평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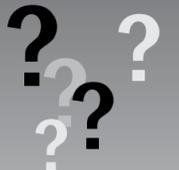
로 살려는 크리스천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애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포함해 모두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야!!! 죄값을 치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로 할 수 없는 모독과 아픔을 참아내는 죽기까지 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작업을 위한 수많은 악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치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들이 미국의 지금 상태까지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기도와 믿음을 행동에 취할 생명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시면서 두 손을 드는지요? 성경적 근거는 어디인지요? 그리고 축도는 신앙뿐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지요? 그리고 목사님들 마다 축도가 다른데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가 맞는지요? 아니면 “있을 쩌어다”가 맞는지요? - 하버에서 이희은

A: 먼저 축도의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첫째가 고후 13:13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 축복(blessing)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축복하는 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축도는 구약에도 나오입니다. 민 6:24-26이 그것인데 이 축도는 한국교회와 주일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화란의 개혁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시에 민 6:24-26을 이용하여 축복하고 저녁 예배 시에는 고후 13:13을 이용하여 축도합니다. 민수기 6장의 축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문입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와 성부의 복이고 두 번째 여호와와 성자의 복이고 세 번째 여호와와 성령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대신하여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선포”

이제 두 번째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굳이 왜 손을 드는지요? 에 대한 대답으로 눅 24:50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사실 축도하는 것은 기도나 기원이 아닌 축복이므로 굳이 눈을 감을 필요가 없으나 한국교회는 전통이 되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축도 때 유의할 점은 축도는 복을 비는 기도라기보다 축복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보다는 “있을 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목사가 지긋한 나이가 있는 성도 앞에서 “있을지어다”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대신하여 복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축도의 대상은 너희 무리(all)이므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구약학 교수인 이장배 교수는 축도의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복의 대상으로 불신자나 무생물체를 표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바른 지적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사업체, 직장, 노회, 총회, 대한민국, 세계교회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축도의 대상으로 축도의 자리에 없는 대상을 포함하거나 축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생물체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지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말 할 수 있는 용기

새 학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보다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한 아이들의 2021~2022년도 학교 과정이 감사하게 잘 끝났다. 하지만 나의 감사함에 큰 미안함이 더하는 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텍사스 유벨디롬 초등학교 총기사고로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방학일이라 두 시간 일찍 끝난다며 신나서 학교에 간 아이들을 픽업해서 뒷자리에 태우는데 룸미러로 본 아이의 얼굴이 온 듯한 모습이다. 깜짝 놀라 올랐나고 무슨 일이 있나고 물어보니 담임선생님과 반의 모든 친구가 마지막 날 헤어짐을 슬퍼하며 굿바이 인사와 서로 허그를 하며 함께 많이 웃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남자아이라 감

정표현이 크지 않은 아이가 차에 타서도 붉어진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는 걸 보니 괜히 함께 울컥해졌다.

2학년용 채 마치고 전에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전환했고, 3학년은 친구들을 한 번도 교실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아이는 학년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과의 학교생활은 서로에게 쌓인 그리움만큼 부모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 간 듯하다.

개학 후 5학년이 되어 학교에 가면 모두 다시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지금까지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은 아닐 거라며 울먹인다.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답답한 시간이라 생각했던 지난 2년은 조용히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이가 격

양된 대화를 이어간다. 한 보조 선생님이 이틀을 말하며 그 선생님께서 허그해 주시며 "I'm sorry for being so tough on you"라고 얘기하셨다고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났다는 얘기를 하거나 담임선생님과 컨퍼런스에서도 특별히 문제 있음을 듣지 못했던 나는 깜짝 놀라 "왜 그 선생님께서 많이 혼났었어?" 하고 물어보니 가끔 친구와 장난치고 까불다가 한

번도 나에게 쌓인 그리움만큼 부모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 간 듯하다.

개학 후 5학년이 되어 학교에 가면 모두 다시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지금까지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은 아닐 거라며 울먹인다.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답답한 시간이라 생각했던 지난 2년은 조용히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이가 격

양된 대화를 이어간다. 한 보조 선생님이 이틀을 말하며 그 선생님께서 허그해 주시며 "I'm sorry for being so tough on you"라고 얘기하셨다고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났다는 얘기를 하거나 담임선생님과 컨퍼런스에서도 특별히 문제 있음을 듣지 못했던 나는 깜짝 놀라 "왜 그 선생님께서 많이 혼났었어?" 하고 물어보니 가끔 친구와 장난치고 까불다가 한

번도 나에게 쌓인 그리움만큼 부모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 간 듯하다.

개학 후 5학년이 되어 학교에 가면 모두 다시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지금까지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은 아닐 거라며 울먹인다.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답답한 시간이라 생각했던 지난 2년은 조용히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이가 격

양된 대화를 이어간다. 한 보조 선생님이 이틀을 말하며 그 선생님께서 허그해 주시며 "I'm sorry for being so tough on you"라고 얘기하셨다고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났다는 얘기를 하거나 담임선생님과 컨퍼런스에서도 특별히 문제 있음을 듣지 못했던 나는 깜짝 놀라 "왜 그 선생님께서 많이 혼났었어?" 하고 물어보니 가끔 친구와 장난치고 까불다가 한

번도 나에게 쌓인 그리움만큼 부모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 간 듯하다.

개학 후 5학년이 되어 학교에 가면 모두 다시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지금까지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은 아닐 거라며 울먹인다.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답답한 시간이라 생각했던 지난 2년은 조용히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이가 격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남침례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회 될까...

미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남침례교인들은 무거운 마음,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연차총회를 준비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시시피에서 사역하는 아담 와이아트 목사는 "우리의 사명은 선교사를 보내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목회자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남침례회(SBC)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EC) 위원이 됐다. 당시 SBC는 성적 학대를 행한 목회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와이아트 목사는 EC에 합류한 뒤 성폭력 등 학대 받은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위해 싸우고 옳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C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첫 EC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 같은 조사가 SBC를 법적, 재정적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와이아트 목사는 "회의 현장을 지켜보던 피해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 쉬는 걸 봤다. 그들이 견뎌야 했던 힘든 싸움을 볼 수 있었다"며 조사가 쉽지 않았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잘못을 발견하고 인정해도 보상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EC는 SBC 지도자들의 학대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 등을 담은 28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발행했고 학대 혐의로 고발된 700명의 목회자 목록도 공개했다. 현재 SBC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CT는 SBC가 역사상 가장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22년 연차총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SBC는 14~15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연다. 8500명 이상의 남침례교인들이 참석해 학대 신고 절차, 개선된 대응 정책, SBC 목회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SBC 차기회장으로 거론되는 두 후보의 입장은 엇갈린다. 바트 바버 목사는 "조사에서 밝혀진 '절대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반대로 톰 애스콧 목사는 보고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이자 승무원인 피해자 줄스 우드슨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애너하임행 비행기편을 예약했다. 그녀는 "올해 대회에서 개혁 권고안을 표결하는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 희망은 생존자들에게 매우 끈끈한 단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우드슨의 2019년 증언은 교회관 미투운동인 '#처치투'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현재 SBC의 구호단체인 샌드릴리프(Send Relief)도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100만 달러(약 12억 8000만원)를 포함해 총 400만 달러를 자

금으로 확보한 상태다.

EC에서 7년 동안 일한 자레드 웰먼 목사는 "적어도 SBC의 대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 아니 가장 중요한 대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세계, 담배와 '독한 전쟁'

전 세계가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 곳곳에서 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개인의 생명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머니마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담배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 세계는 '무연연 사회'를 장기적 목표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손꼽히는 '금연정책 선진국'인 캐나다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담배 한 개비마다 금연 문구를 새기는 담배 규제를 검토 중이다.

담배에 새겨질 문구는 '모든 뱃피에는 독이 있다(Poison in every puff)'가 가장 유력하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캐럴린 벤틀 정신보건부 장관은 "담배 개비에 건강과 관련한 경고를 추가하면 이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흡연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캐나다는 담배갑 경고 그림을 2001년 최초로 도입했다.

미국 정부는 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중독성을 띠지 않는 수준까지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담배 규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담배의 니코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1년 넘게 고민해 왔는데, 자국에서 매년 48만명 이상이 담배 유해물질과 관련한 질환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추산 결과가 나오자 갈을 빼 들었던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금연정책도 세계적인 추세다. 뉴질랜드는 올해 안으로 2027년부터 담배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매년 한 살씩 올려 2008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담배를 사지 못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이 되면 40세 이상, 2058년이 되면 50세 이상만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다음 세대에 담배 판매 자제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영국도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현재 청소년 세대는 성인이 된 이후에 아예 담배를 못 사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기로 했다. 영국 정책 권고 보고서에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세에서 매년 한 살씩 올려 최종적으로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내에서 담배에 가장 관대한 문화를 가진 스위스도 최근 담배 규제가 나섰다. 스위스에서 지난 2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다. 스위스에서 담배산업이 매년 60억 달러(7

조1982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도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다.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와 함께 담뱃갑 포장 규제는 해마다 강화돼 왔고, 2019년부터 전자담배에도 혐오 사진을 부착하게 됐다. 담뱃값은 1994년 이후 7차례 인상했고, 가장 최근의 인상은 2014년이였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럽담배규제전략(ESTC)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담뱃값을 높이도록 권고한다.

미 상원서 총기 규제 협상 타결...

미국 상원에서 총기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합의안에는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소유 금지를 둘러싸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 소유 금지 대상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도 포함됐다. 다만 돌격 소총 규제 등 강경 조치는 빠졌다.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29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안이 마련된다.



크리스 머피 등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존 코닌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총기 안전 조치를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개인이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소유를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법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관련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배경 확인 요건도 강화한다.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할 때 이들의 미성년 범죄 기록과 정신 건강 기록에 관한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당파 의원들은 배우자가 아닌 데이트 폭력 범죄자에게도 총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남자친구의 허점'(boyfriend loophole)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당파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가족들은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의 안전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국 전역의 폭력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합의에 서명하면서 총기 규제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 의석 상황상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고 총기 규제를 입법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 찬성이 필요한 데, 그 숫자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WP는 전미총기협회(NRA)에서 'A+' 등급을 받은 코닌 의원이 공화당 측 협상 대표로 참여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치 매크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초당적 회담이 좋은 진전을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동의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원칙적 합의에 불과하고 아직 입법 내용이 아니어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공

격용 소총 및 대응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등 내용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빠졌다. 그러나 공화당의 강경한 반대로 번번이 입법에 실패해 왔던 기존 협상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즈(NYT)는 "총기 폭력에 대처 방법에 대한 정당 간 깊은 분열, 공화당의 반대로 인한 반복적 입법 실패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미흡하지만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건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다.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 안전" '우리의 삶을 위한 행진' 등 총기 규제 옹호 단체도 "총기 폭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파 연합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다.

미 총기폭력기록보관소에 따르면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은 올해에만 264건이 발생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총기 사건 중 17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사망자는 이날까지 739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성차별' 소송 결린 구글

구글 여성 직원들에게 남성 직원들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여성 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 1800만 달러(약1515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은 12일(현지시간) 여성 직원 추(월고) 변호사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과 이치퍼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제3자 전문가 그룹의 고용 관행을 분석하고, 노동경제학자의 급여 평등 연구 검토에도 동의했다. 구글은 향후 3년 동안 외부 조직에 의해 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9월 3명의 여성이 제기했다. 같은 해 미국 노동부 역시 구글이 여성·아시아계 직원들을 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노동부가 낸 소송은 2021년 약 5500명의 직원과 구직자에게 380만 달러(약 49억 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 3명은 구글 내 236개 직책,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으로 확대했다. 원고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구글의 불법행위는 캘리포니아주의 동일임금법 위반, 공공고용주책법 위반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같은 직업군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이 비슷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남성과 여성 중 여성에게 낮은 직급을 배정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구글의 이런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구글) 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예비 심리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우리의 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공개 믿고 있지만, 거의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양측은 인정이거나 조사 결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8. 박세환 (1879-1950)

박세환은 1879년 9월 4일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1897년에 이순이와 결혼했다. 24세가 되던 1903년 4월 11일에 하와이 노동 이민으로 그는 아내 이순이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Park Sai Whan이 되었다. 그들은 하와이섬 올라 농장으로 배속되었다. 이듬해 하와이 올라에서 장녀 레이철이 태어났다.

하와이에 온 지 5년이 되는 1908년 1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3회 하와이 연회는 박세환을 오아후섬의 목골니아 한인감리교회와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의 권사로 파송했고,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에 양형Y도 권사로 파송했다. 1909년 3월까지 목골니아 한인감리교회에는 1년 동안 성인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주일학교에는 교사와 직원 5명이 등록 학생 20명 중 평균 20명이 출석한 가운데 가르쳤다. 한 해 동안 교인 1명이 별세하는 슬픔을 안은 힘든 노동 상황에서도 1년간 총 10달러를 헌금했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23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2명이었으며, 그리고 예배당 건물과 대지는 500달러에 해당했다.

그리고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에는 19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어린이 4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성인 17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주일학교를 두 곳에 설치하여 교사와 직원 5명을 임명한 가운데 등록 학생 31명이 모두 매주 출석하여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1년간 총 27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는 목골니아 한인감리교회가 헌금한 액수보다 약 3배나 되었다. 그달에 학습교인은 30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7명이었다. 그리고 예배당은 한 곳에만 있었고, 건물과 대지는 600달러에 해당했다. 한 해 동안 교인 1명이 별세하여 슬픔을 맞았다.

1909년 3월에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4회 하와이 연회는 박세환을 황계S와 함께 오아후섬의 예와 한인감리교회의 권사로 임명했다. 1910년 3월까지 1년간 어린이 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성인 1명이 세례를 받았다. 주일학교에는 3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고, 53명이 등록했고, 그

리고 엠플스 연맹 고등부에 1명이 등록했고, 본 연맹 중등부에 17명이 등록해서 활동했다. 그달에 학습 교인은 24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6명이었다. 시가 1,500달러가 되는 예배당에 1년간 수리비로 200달러를 지출하였고 총 25달러를 기부했다.

1910년에 하와이섬은 이른바 "큰 섬"이었다. 2천 명 이상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북쪽에 있는 고하라에

서 남쪽에 있는 가우에 이르는 해안과 서쪽에 있는 코나에서 동쪽에 있는 하마우에 이르는 해변을 끼고 어딘가 거주했다. 이곳에 박세환을 비롯하여 최진태, 김중수, 장영환, 조성환, 조유태 그리고 이선일이 충성스럽게 전도하고 목회했다. 한인감리교회 간 거리는 멀고, 길은 험했으며, 한인들이 매우 넓게 흩어져 살았으므로 순회 전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이 중에 파할나 한인감리교회와 호놀루아 한인감리교회는 특별히 강했고 공격적으로 전도했다. 하와이 농장의 한 지배인이 몇 주 전에 있었던 저녁 식탁에서 한인 전도자의 사역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고 높이 칭송할 만하다고 말했다는 데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해 1910년 3월에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5회 하와이 연회는 박세환을 하와이섬 고타라 구역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는 고타라 한인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다른 두 교회를 순회 방문하였고, 하와이 연회가 고타라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임명된 김성S와 함께 합력했다. 1911년 1월까지 고타라 구역의 세 교회에서 어린이 4명이 유아세례를 받았

고, 성인 9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달에 학습 교인은 42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9명이었다. 주일학교를 두 곳에 설치하여 15명의 교사와 직원을 임명하였으며, 영아부까지 포함하여 등록 학생은 45명이었다. 엠플스 연맹 고등부에 등록된 학생은 1명이었고, 본 연맹 중등부에 등록된 학생은 24명이었다. 총 28달러를 헌금했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은 세 곳에 있었으며, 세 예배당 건물의 시가는 860달러였는데 한 해 동안 예배당 구입비와 수리비로 560달러를 지급했다. 윌리엄 노트와 김유순과 함께 박세환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하와이 선교부의 절제위원회 회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1911년 1월에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6회 하와이 연회에서 박세환은 이선일, 조영태, 조한식 그리고 임준호와 함께 집사 목사 과정 2년 차에 들어갔다. 집사 목사 과정 1년 차에는 장영환과 최Y가 있었다. 박세환은 김유순과 윌리엄 노트와 함께 그달에 본 연회에서 절제위원회 보고를 다음과 같이 했다: '지난 1년간 하와이에서 다소간 절제 운동이 성공하였다. 비록 정치국민투표 캠페인에서 실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학습을 받은 28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고, 11명이 학습을 받았다. 1년 후인 1916년 2월에 학습 교인이 11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45명이었다. 안타깝게도 교인 한 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두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네 곳에 개설하여 21명의 교사와 직원을 두었고, 등록 학생은 62명이었고, 엠플스 연맹 고등부에 30명이 등록하였다. 1916년 2월에 예배당 건물과 대지의 시가는 650달러였다.

1916년 2월에 모인 하와이 연회는 박세환이 80점을 맞아 4년 과정의 집사 목사 과정을 마쳤음을 보고했고, 그달 20일 오후 2시에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이관목, 김재성, 조한식, 가메노스기 다나가, 오시미 미우라 그리고 코르넬로 C. 라미레즈와 함께 박세환은 하와이 선교부 월슨 S. 루이스 감독으로부터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그날 흥한식은 장로 목사로 안수받았다. 박세환은 김중수와 이관목 등과 함께 정규 과정에서 순회 선교사가 되었고, 장로 목사 과정 1년 차에 들어갔다. 그달에 그는 작년에 이어 하와이섬의 호놀루아 구역의 한인 선

교사로서 헌신을 위하여 40달러를 사용했고, 578달러로 자선활동을 펼쳤다.

1918년 3월에 제13회 하와이 연회가 모였다. 연회 마지막 날 박세환은 이관목과 가메노스기 다나가와 함께 윌리엄 H. 프라이 감독과 리온 L. 루프부로 목사로부터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고 순회 선교사가 되어 다시 하와이섬의 호놀루아 구역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하와이 연회는 호놀루아 구역에 평신도 전도사로 황인W와 이난C를 임명했고, 정한흥, 변성환, 박조범, 이승욱, 최승약을 권사로 지명했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는 P.A. 알베아르, 일본인 Z. 히로다, L.L. 루프부로와 함께 연회 성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필리핀에 있는 C.C. 라미레즈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세환은 흥한식 외 3명의 한인 목사와 J. 모리모도 목사와 2명의 일본인 목사 그리고 L.L. 루프부로와 함께 조사 위원회에 소속되었다. 그해 10월에 박세환은 세계 제1차전쟁 징병서류를 제출했다. 그가 적은 신상기록에 따르면 중간 체구에 장신이었다고 하나 168cm였고, 검은 머리카락에 갈색 눈을 지녔다.

1919년 3월에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14회 하와이 연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리온 L. 루프부로가 박세환이 캘리포니아 연회에 보낸 목사직 사면에 관한 편지를 읽었다. 박세환은 목회를 위하여 더 많은 준비를 하길 원했고, 사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전에 빛을 갠길 원했다. 그래서 하와이 연회 관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연회가 그의 사면을 허락하고,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연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와이 선교부는 그에게 차기 선교지를 임명하지 않기를 추천했다. 그의 사역에 감사하는 캘리포니아 연회가 보낸 편지를 읽은 후 더 나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박세환은 1930년 이전에 하와이섬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월터 정 사무실

amien,sohn@gmail.com

1910년 하와이섬 고타라 구역 선교사로 파송 1916년 월슨 S. 루이스 감독으로부터 집사 목사로 안수 1950년 1월 22일 박세환은 향년 71세로 하나님의 부름 받음

패했지만 많은 사람이 이 캠페인을 알았고, 술집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존 G. 우리 경이 워싱턴에서 거주하면서 커티스 빌을 옹호하고 있는데 만약 승인되면 우리에게 하와이 연방 금지법을 갖게 될 것임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낙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사랑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를 제거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 연회에서 박세환은 김유순, 이선일 그리고 윌리엄 노트와 함께 작년에 이어 하와이 선교부 산하의 절제위원회 회원으로 임명받았다.

그달에 박세환은 작년에 이어 하와이섬의 고타라 구역의 구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하와이 선교부가 고타라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임명한 박낙H와 함께 박세환은 고타라 한인감리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유니온 밀과 하위에 있는 한인 노동자를 순회 전도하며 이 두 곳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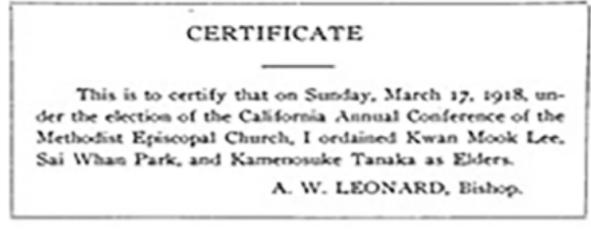
박세환은 1915년에 하와이섬의 호놀루아 구역과 국구헤리가 위치한 구역의 구역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그는 선교회가 파송한 두 명의 전도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1916년 2월까지 1년간 성인 11명이 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6명이

교사로 파송 받아 그달에 연회가 임명한 변성운과 고덕하 구역 권사로 합력했다.

박세환은 작년에 이어 1917년에도 하와이섬 호놀루아 구역의 구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918년 2월까지 1년간 성인 2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어린이 10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으

며, 학습 받은 어린이 1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9명에게 학습을 주었다. 1918년 2월에 학습교인은 40명이었고, 세례교인은 3명이었다. 주일학교를 두 곳에 설치하여 11명의 교사와 직원을 두었고, 등록된 학생은 30명이었고, 엠플스 연맹에 20명이 등록하여 활동했다. 1918년 2월 시가가 650달러인 예배당에 1년간 125달러를 사용하여 수리하

에 근무하다가 세탁업에 종사했다가 1940년에 한국을 방문한 후 은퇴한 것 같다. 동족상쟁의 6.25동란이 발발하기 5개월 전인 1950년 1월 22일에 박세환은 향년 7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부인 이순이와의 사이에 세라, 월터, 리처드 등이 있었다.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850)423-9700, Fax: (702)257-9961 6554 W. Desert Inn, Re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화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2)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찬양예배: 오전 10:0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a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세 배 예 배: 오전 6:00(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 국 화 교: 오전 10:20(주일) Tel: (702)579-7576, Fax: (213)703-9961 5502 Old Behner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5-1842(H), (254)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재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bcoma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ristia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ristia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ristia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ristian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말씀과 땅 (10) -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 언제 아브람은 그 땅을 보았을까? 창세기 12-13장은 세 번의 가능한 시점을 제시한다.

첫째,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창12:4-5) 이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가나안으로 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다는 가정을 세울 근거를 발견한다. 그래서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가 목적이로서 가나안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들었을 때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12:7). 여기서 잠시 문맥을 살펴보면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12:6)는 기록이 바로 앞에 있고, 이 문장의 "그 땅" (bā'ares)을 하나님은 "이 땅" (hā'ares hazzō')이라 지칭하시며 약속을 말씀하셨다. 이때 아브람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받은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창12:7) 그렇게 아브람은 이제 가나안에 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땅"을 "이 땅"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찾아온 기근은 아브람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 - 애굽.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 길이 있는 곳. 나일강이 물을 대어주는 땅. 그 애굽을 바라보게 한

것은 분명 아브람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진 안목이었을 것이다. 사실 기근이 들 때 가나안과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애굽은 당연한 피난처였다. 비에 의존해야 하는 가나안과는 달리 애굽은 큰 강을 끼고 있어서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가뭄 때 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아브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바로 그런 강을 낀 땅에서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 75년을 살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타지에서 삶의 막 시작할 그가 또 한 번 이주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힘들었을 애굽 피난 행이 그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아브람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창12:1)라는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강을 끼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애

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창 12:7)

그런데 이때 우리는 아브람에게서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더이상 자신의 안목으로 땅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내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13:8-9)

반면 롯의 눈은 여전히 강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말까지 온 땅에 물이 넘었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니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창13:10-11)

이 대화가 오고 간 곳은 벨엔과 아이 사이였다.(창13:3) 거기

번째 기록이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은 비로소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하신 대로 보고 있었다. 드디어 "이 땅"에는 비도, 요단 지역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을 가능케 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수 천 년이 지난 2022년 4월 9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요단 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초지에 가축을 몰고 들어가 풀을 뜯기며 소요를 일으킨 사태가 보도된 바 있다. 사실 요단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마치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의 다툼을 보는 듯해 관심이 간 일이다.

이토록 21세기에도 계속 회자되는 요단 지역은 그 상당 부분이 현재 요단강 서안지구(West Bank)에 포함되어 있다(지도의 청색 사선처리 부분). 1967년 전쟁의 승리로 서안지구를 차지했던 이스라엘은

아브람의 안목으로 보는 그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에 보이기 시작

서 보면 동쪽에 펼쳐진 요단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 비록 그 일년 유출량이 나일강의 하루 유출량에도 못 미치는 보잘것없는 강이지만,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일 년 내내 흐르는 물줄기인 요단강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그 요단 지역에 아브람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주신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13:14-17)

이것이 아브람이 "그 땅" 가나안을 바라본 시점에 대한 세

1994년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 따라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게 넘겨주기에 이르렀지만, 차후 온 통치구역, 군 훈련지역, 국유지, 정착촌, 자연보호구역 등의 개념을 동원해 서안지구에 속한 요단 지역을 여러고를 제외하곤 모두 다시 점령해버렸다. 그리고 2019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비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이토록 요단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어서 꼭 되찾아야 할, 그리고 다시는 양보할 수 없는 정치, 경제, 군사적 요지로 재 각인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아브람이 놀란다. 이런 요지 요단 지역을 그는 롯에게 양보했던 것이다. spark4@gordonconwell.edu

7번째 기록이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은 비로소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하신 대로 보고 있었다. 드디어 "이 땅"에는 비도, 요단 지역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을 가능케 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세상을 이기는 비법 2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결정은 자녀 양육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키울지 아니면 세상의 학문으로 가득 채워 세상의 종으로 키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탁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잠깐동안 맡은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는 두 번째 전략은, '위지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꾴다. 왕은 그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은 박사들을 불러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꿈 꿈의 의미를 알아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다니엘 역시 위기에 처합니다.

다니엘은 이때 명철함으로 왕의 해몽 기한을 연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꿈의 의미를 알아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다니엘 2:19-20)

다니엘은 위기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다니엘 2:47)라고 말하고,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된 후에도 다니엘은 또 꿈을 해석하게 되어 고위 지도자로 등용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국인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는 세 번째 전략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매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에게 또 위기가 닥칩니다. 신하들은 30일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가두는 형벌을 제정했습니다(다니엘 6:7). 이는 만인의 칭찬을 받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의 횡포였지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합정이고 계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요동 없는 모습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다니엘 6:10).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었고 용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써 목이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목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다니엘 6:23)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는 자녀로 키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성품 세미나 문의 201-693-1976
*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는 전략,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숙 박사의 <성품훈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원예배: 오후 2:00 글로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7:30(월-토)</p> <p>nlcusa@yahoo.com / www.nlcusa.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시망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2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글로벌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선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d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오후 7:30</p> <p>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글로벌예배: 오후 7:30(월-토) 세례기도회: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hc.org / www.bh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클럽하우스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동동무사) 상담사: (월-금) 오전 10:00(후회) 4:30 사목대상: 2. 회화 상담 3. 영성 상담 사역: 1. 목회 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영성사역 4. 네트워킹 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국제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세례예배: 오후 7:0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성경이 읽히지" 오전 9:30 오전 7:00</p> <p>Tel: (213)500-2948, dcbk.kim@hbcus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살다가 간 사람들”

금년 메모리얼 데이는 인구 이동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황금연휴라고 분주하게 다니지만 정작 그 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은 국가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살다가 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심각한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 날일 것입니다.

모두 자기를 위하여 하루라도 더 오래, 잘살아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데 그들은 전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이란 참혹한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간 우리들의 영웅들인 그들에 대한 예의를 가져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가친척, 부모 형제 중에 이

땅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LA라는 도시는 한 인더운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 매일 발간되는 신문 광고면을 통하여 살다가 가는 사람들의 부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잠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산다는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도 하지만 곧 현실에 빠져들어 영원히 살 것처럼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인도 악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라는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연 살다가 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심각한 메시

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살다가 갈 사람들임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처지임을 알게 되면 각자 자기로 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살다가 가야 할 자임을 알고 이렇게 기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시 90:3)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둘째로 우리가 살다가 갈 사람들기에 후회함이 없도록 살아가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많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면 확실히 사람의 자세와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살다가 가야 할 사람들임을 절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인생관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보다 넓은 사람의 품을 가지고 보다 큰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남이나 하는 일에 후에 함이 없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인생의 후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고 나면 우리 뒤에 살아남아 이 땅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다가 간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LA에서 모범적이며 목회를 하신 베델교회 고영의 목사님의 추도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어른은 가셨지만 그가 남긴 삶의 족적이 그곳 베델교회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야 할 자기 임을 깨달으면 남은 삶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영생권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백 년 미만의 지구촌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살다가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영생천국에서 보내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요 5:24) yosupbois@hotmail.com



벨리연합감리교회 이임예배에서 류재덕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벨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 이임예배

만남과 헤어짐의 경험은 믿음의 성장기회 될 것

벨리연합감리교회는 류재덕 담임목사 이임예배를 지난 5월 29일(주일)에 드렸다. 주일 오전 11시에 본교회 찬양팀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유정 권사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성대가 찬양했다. 이날 류재덕 목사가 ‘예수님 잘 믿어요. 잘 믿을시다(빌 1:19-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류재덕 목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성

도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알기에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의 경험은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고 함께 엮으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류목사는 “내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의 의무감 강요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마른곳에서도 풍성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하며 “언제 만나던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들로 살 때 우리의 삶의 과정은 의미가 있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의미있게 다가오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만날때 기쁨의 얼굴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말씀에 이어 류재덕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으며 4중창 특송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류재덕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류재덕 목사는 미국회중교회에서 다음사역을 시작하게 되며 벨리연합감리교회는 이상호 목사(연합교회)가 새 담임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박준호 기자>



열매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마친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열매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죽도록 충성하며 섬김으로 복을 누리려는 자가 되자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창립 21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12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요섭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임진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광덕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 담임/KAPC가주노회

장)가 ‘들으라(신 6:4-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광덕근 목사는 “신명기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 말했다. 광 목사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며 “창립21주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바란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섬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려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로 임직식이 있었다. 임직식은 서약, 안수, 악수례, 공포로 이어졌다. 이정남 목사(전 가주노회장)가 권면했으며 토마스쉬마우스 장로가 감사했다. 이어 고승경 목사(전 가주노회장)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안국련 목사(본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장로는 “부족한 저에게 무거운 사명과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시길 잘 감당하려고 한다. 기도와 격려를 해주신 성도님들과 지도하여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 굿스튜어즈클럽 - 김동일 회장, 김현태 부회장

아이들이 봉사 할 수 있는 단체 만들고 파

아프카니스탄 구호물품 포장작업을 비롯해 웨스트코비나시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축제, LA마라톤 등에 자원봉사 실시

지난 6월4일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린 굿스튜어즈클럽(Good Stewards Club, 이하 GSC)에서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30명의 학생들이 봉사상을 받은 GSC는 창립된지 1년 정도 되는 비영리 청소년 봉사단체이다. GSC의 김동일 회장과 김현태 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GSC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김동일 회장은 “시작은 선한청지기교회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GSC가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김 회장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마음을 심어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활동”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21년 초부터 작은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GSC가 출범할 때까지 어려운 웨스트코비나지역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한인봉사단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나누다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위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임이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3개월가량 준비를 한 끝에 8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으며 10월 공식적으로 GSC가 출범하게 되었다. 선한청지기교회내에는 이미 남가주밀알선교단의 사랑의교실이 운영되고있는데 GSC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사랑의교실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주로 중 고등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다. 반면 GSC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사랑의교실 같은 곳에 참여하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라 설명했다. GSC 봉사활동은 출범초창기에는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해 주로 교회청소, 교회에 입점해있는 카페 '시소'에서 정리정돈 등을 해왔다. 하지만 11월부터 봉사활동영역을 넓혀 아프카니스탄에 구호품을 보내는 기관에서 구호품 포장작업을 비롯하여 자폐아동들을 돌보는 기관, 웨스트코비나시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축제, LA마라톤 등에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랄까요. 부모가 한인이다 보니 한인커뮤니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본인들은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고 영어가 수월하게 되는 미국인인데 한인커뮤니티라는 경계 안에 머물려고 한다는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주류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GSC 부회장 김현태 목사는 웨스트코비나 인근의 한인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타인종들이 주최하는 이벤트에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GSC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의미 있는 이벤트에 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범당시 GSC는 선한청지기교회 학생 30명들로 구성되었지만 현재는 등록이 된 학생이 45명이며 다양한 봉사단체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입소문으로 퍼져 LA 동부지역의 타교회는 물론 불신자들까지 함께하고 있다. 김현태 목사는 “성경에는 세상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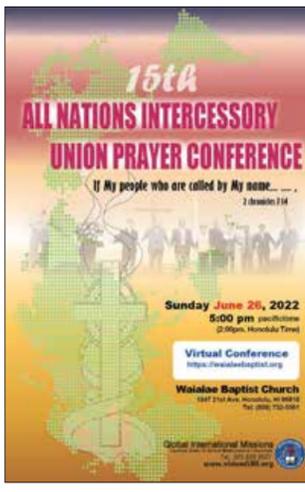
GSC 회장 김동일 집사(사진우측)와 부회장 김현태 목사

가라고 되어있다. 이는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끼리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그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피부도 다르고 인종과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 한인들끼리 아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GSC에서 추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동일 회장과 김현태 부회장은 GSC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단지 대학진학을 위한 톨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주변을 살펴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그리스천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GSC에서 배웠던 것을 나누면서 다시한번 그들에게 접어들었던 신앙을 깨워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 문의: GoodStewardsClub@gmail.com <박준호 기자>

제 15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제 15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컨퍼런스가 오는 6월 26일(일) 오후 5시 하와이주 Honolulu에 위치한 Wai'alaie Baptist Church에서 Virtual 개최로 진행된다. Htps://www.wai'alaiebaptist.org 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GIM : 대화장 정윤명 목사) 주최의 이번 컨퍼런스는 역대 기하 7:14 말씀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주류교회, 이란, 티벳, 중국, 홍콩, 타이완, 미안마, 러시아, 우크레인,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미국내외 35여 민족이 비추얼로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중요한 기도요청을 발표한다. 특별히 한반도 이슈를 비롯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크레인과 미안마 교회를 위해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알래스카, 하와이 등 지역의 민족교회 목회자들이 영상으로 중보기도 발표 시간도 갖는다. 미국 주류 교회들은 미국의 회개와 회복 선언문을 발표하고, Covid 19 pandemic과 우크레인 사태를 비롯한 지구촌 열방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북가주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대표, 강영혜)의 크로마하프 연주를 비롯, 샌프란시스코 미안마교회의 Worship찬양팀, 산호세 Mountain View에 위치한 미국 대형교회인

Abundant Life Christian Fellowship 의 하와이 Worship Praise 등이 비추얼로 참여한다. 컨퍼런스는 뉴 멕시코주 South-West 대학교의 케빈 월드롭(Kevin Waldrop)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Matt Sanders 박사가 (Senior Pastor at Wai'alaie Baptist Church & President at Hawaii Baptist Foundation)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대화장인 정윤명 목사는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을 비롯 우크레인, 미안마, 홍콩, 중국, 파키스탄, 티벳등 지구촌의 핍박과 억압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와 함께, 영상으로 발표를 하게 될, 이번 Virtual 컨퍼런스에 미국내 한인들의 많은 참여의 시정도 바라고 있다. <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제공>



동부교계 게시판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예수, 온 인류의 소망 (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 15:12)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1 일(월)부터 14일(목)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영렬 목사)에서 열린다.

후기등록 Late (6월 20일 June 20) \$320 / 현장등록 Walk-ins \$350
▲문의: kwmc.usa@gmail.com, http://kwmc2022.org, 한국: 070-4610-1346/ 미주: (714)603-7192

여름성경학교(VBS) "Monumental"

영생장로교회(백운영 목사)와 한인동산장로교회(이풍삼 목사)에서 "Monumental"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VBS)를 개최 한다. 일정과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영생장로교회(PA) 문의: 215-542-0288, 일시: 6/19(주일)-6/22(수)
▲한인동산장로교회(Yonkers, NY) 문의: 914-961-0540, 일시: 6/24(금)-6/26(주일)

복음뉴스 창간 5주년 감사 예배, 7월 24일로 연기

복음뉴스 창간 5주년 및 종이 신문 발간 1주년 감사예배 일정이 7월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장소: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문의: 준비위원장 김요셉 목사(전화 : 516-780-4525), 발행인 김동욱 목사(516-241-6024)

에벤에셀선교교회 은퇴 및 임직 예배

에벤에셀선교교회(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6월 26일(주일) 오후 5시에 은퇴 및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린다. 2명의 은퇴식 및 7명의 임직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일시: 6월 26일(주일) 오후 5시
▲문의: 에벤에셀선교교회718-570-5858

뉴저지 한무리 교회 사역자 청빙

뉴저지 한무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진 아동부와 중등부를 담당할 두 분의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신학 대학,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하신 분, 영어 설교 가능하며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으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본인 소개 및 신앙 고백서이며, hanmoory@hotmail.com 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527-8200

뉴욕성령대망회 영성회복집회

은혜와진리교회 (담임목사 심화자)가 주최하는 뉴욕성령대망회 영성회복집회가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목사 양승호)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소서!"라는 주제로 갖는다. 강사는 이상환 목사 (포천신복교회).

▲문의: 646-725-9318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수업(6강좌) 개설

아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은 2년차 1학기 수업(6강좌 -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전병철 교수), 사회 이슈와 교회 교육(이숙경 교수), 모세오경(이한영 교수), 사복음서(허주 교수), 복음이란 무엇인가(이재훈 목사), 성과 결혼(최금순 교수)을 새롭게 개설한다. 이번 개설 수업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각 전공 분야의 아신대 교수 5인이 참여하여 이론과 교육 실재를 균형있게 다루는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아신대학교 평생교육원(031-770-7889, edu@acts.ac.kr)



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뉴저지 교협, 2022 뉴저지호산나대회 열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2022 호산나 대회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를 걸고 6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렸다. 뉴저지 교협(회장 고한승 목사) 주최로 열린 본 대회는 박신일 목사(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를 강사로 초빙했다. 박신일 목사는 첫째 날 '은혜의 사람'(열왕기상 17:10-14), 둘째 날 '축복의 사람'(창세기 41:14-16), 셋째 날 '승리의 사람'(사무엘상 17:25-49)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편 대회를 마치고 13일(월)에는 목회자세미나가 "양육 목회와 양육 교재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금번 호산나 대회를 통해 드러진 헌금은 어려운 교회 렌트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예수님을 울동과 노래로 찬양하는 하랑예찬 팀원들

2022 "하랑예찬" 찬양 전도집회 다음세대들이 예수님 찬양하기를 소망

어린이 찬양집회인 '하랑예찬' 찬양집회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교육부 특별활동위원회(담당: 강지영 전도사) 주최로 11일(토) 저녁 7시에 열렸다. 하랑예찬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양"의 줄임말로써 어린이들이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어린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사역이다. 퀸즈장로교회 소속 6세-10세 사이 어린이들이 Senior(초등부)와 Junior(유년부) 나누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기도와 훈련을 계속해 왔다. 사역 스태프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다시 찬양 전도집회를 허락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하랑예찬 사역팀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집회는 김성국 목사의 말씀 선포에 이어 어린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모든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신나는 찬양과 울동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번 9번째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하랑예찬 모임은 사역 초창기 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성장하여 TA로서 모든 팀원의 찬양 울동 훈련을 지도하며 이번 찬양 전도 집회를 준비해 왔다. (김재상 기자)

요셉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생 선발

현재 신학공부 중인 재학생 대상 총 10명 내외로 선발 예정



장미은 대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 장미은 대표는 지난 8일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고 장영춘 목사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한 요셉장학재단 설립과 장학생 선발 전형을 공개했다. 장미은 대표는 고 장영춘 목사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장학 재단에 대한 유지에 의해 설립되게 됨을 강조하였다. 본 장학재단은 "재정담당 정기태 목사(917-733-7387) ▲문의: 정기태 목사(917-733-7387) ▲신청 접수처 우편 주소: 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김재상 기자)



2024년 한국 로잔대회 준비 뉴욕대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4년 로잔대회 뉴욕준비 모임

2024년에 열리는 4차 로잔대회는 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한다. 4차 로잔대회를 위한 준비대회는 6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 허연행)에서 열렸다. 150명의 국제대표들이 참석했다. 허연행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을 섬기게 된 것을 환영했고 이번 뉴욕 준비모임이 2024년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정리: 홍현숙 기자)

한 능력으로'를 주제로 정해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해 왔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1년 이상 정기연주회나 연습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부터 연습을 재개했으며, 교계 모임에서 찬양도 시작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은 40여 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서게 되며 이 다니엘 장로의 지휘와 이한나 선생의 반주로 '주만 바라볼지라' 등 10곡을 찬양한다. 또한 뉴욕코로나마프르연주단, 소프라노 이애실, 크리스탈양상블 등 이 찬조출연한다.

이런 연주회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제작하는 CTS 지원 △민권센터의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는 "정기연주회 재정을 위해 단원들이 먼저 각각 헌금을 했다"라고 소개하며 "정기연주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끌어 내며, 믿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 장로성가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뉴욕사자교회(담임 이창남 목사)에서 연습모임을 가지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특히 노인들을 위해 사역자들이 소셜 미디어, 이메일, 전화, 되도록 직접 방문 등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메소 목사는 팬데믹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양치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장로성가단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뉴욕장로성가단 제16회 정기연주회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정기 연주회 열린다

뉴욕 장로성가단(단장 전병삼 장로) 제16회 정기연주회가 6월 26일 주일 오후 6시 퀸즈 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개최된다. 뉴욕장로성가단은 1996년 10월에 창단되어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6년 동안 15회의 정기연주회, 7개교 해외찬양대회, 300여 회의 교계와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뉴욕장로성가단은 6월 11일(토) 퀸즈 플라싱 삼수감산 2 식당에서 기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연주회를 소개했다. 배상규 장로(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단장 전병삼 장로는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 서리'"라고 소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정기연주회를 못했다. 금번 연주회는 과거보다 좀 더 모든 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최근 나치에 대하여 순교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간증이 담긴 '선

피종진 목사 6월 부흥성회

○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자문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ABKI) 제12기 동문회 교문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M.Min)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1(수) 오후 제 29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주최 한국 지역목회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목회자 사모신문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장소 다산 예정교회 대성전 (설동욱 목사) 010-3942-0002
서울한국문인교회 (박재천 목사) 010-7704-7272

1(수) 저녁 동서문화원 (회장 피종진 목사) 장소 남서울중앙교회 02) 3411-9191
2(목) 오전 철곡외국 국제지역성명회 (원장 박미현 담임 권영철 목사) 010-6514-7371
4(토) 오전 서울 명동교회 (최요한 목사) 010-3767-0347
5(주)~7(화) 세종 생수교회 (최병남 목사) 010-5401-2476
8(수) 저녁 대구 유종교회 (조영환 목사) 010-8808-1487 주회 뉴글라리아교회 대표회장 정영문 목사 010-2296-0675
9(목) 오전 한얼산 기도원 (이영근 목사) (031) 585-1004
주최 지선협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3(월) 오후 장소 서울 한영대학교 (총장 한영훈 목사 주회: 제이제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운영총재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오병철 목사 010-5313-9448)
14(화) 오후 오산리 최자살기념 국제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작은자 섬김 선교회 (대표회장 양우식 목사) 010-8839-8899 부산 글로벌교회 (강은숙 목사) 축복성회 010-3670-8999 (제) 한국기독교 부흥사단계 총연합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장영철 목사 010-7733-9106 장소 서울 한영대학교 (총장 한영훈 목사) 대강당 제 224차 해외성회 (224th Overseas Assembly) 미국 (USA) LA 평화교회 (김은목 목사) (714) 220-7660 미국 (USA) LA 한인철야성회 (준비위원장 김영주 목사) 1 (213) 404-6219 미국 (USA) 1 pray for all Nation 미주 서부지역 세계 기도회 (6.25 7주년 상기) 서부지역총회 김영주 목사 1 (213) 404-6219 미국 (USA) LA 평화교회 (김은목 목사) 1 (213) 249-2467 미국 (USA) 남가주 Karim World Prayer Center (세계평화기도원) 1 (213) 249-2467 미국 (USA) Orange County Family MT 1 (949) 636-1558 미국 (USA)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 남가주주부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1 (714) 220-7660 미국 (USA) LA 하늘문교회 (한기형 목사) (213) 505-0191 LA 출발 귀국

22(수) 24(금) 저녁 25(토) 오전 26(주) 오후 26(주) 저녁 27(월) 28(화) 오후 29(수) 30(목)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월드미션대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독교코칭학회 오규훈 학술원장(왼쪽부터),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 한국기독교코칭학회 학회장 박중호 목사

미주장신대와 월드미션대 크리스천 코칭 석사학위 개설

“크리스천 코치 양성, 코칭 문화 기독교계에 확산”

미주장신대학교(PTSA 총장 이상명 박사)와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코칭학위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가을학기부터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코칭학회(Koreaca Christian Coaching Academy, 이하 KCCA) 회장 박중호 목사, 학술원장 오규훈 목사(영남신학대학교 전 총장)가 미주 지역을 방문하여 7일 오전 10시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미주장신대와 WMU와 MOU를 체결했다. WMU와 미주장신대는 ATS(북미신대학협의회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인가 신학교로 이번에 WMU는 MA in Leadership & Coaching, 미주 장신대는 M.A.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개설한다. WMU 최윤정 교수는 “미주장신대와 WMU에 코칭 분야 학위 과정을 개설해서 미주지역에서 크리스천 코치들을 양성해서 코칭 문화를 기독교계에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KCCA와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중호 목사는 “원래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코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레너드가 국제코칭연맹(ICF)라는 단체를 창설했다.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의 인증 코치를 지금까지 배출했다. 미국경제전문지인 포춘이 발표하는 미국 최대 500 기업과 한국의 기업에서 코칭을 도입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분야”라며 “ICF가 2003년에 한국에 코리아 센터가 생기면서 ICF를 본받아서 한국에도 (사단법인)한국코치협회가 2003년에 동시에 생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1만 명의 코치를 배출하게 됐다. 그런 과정 속에 2018년에 기독교 코

칭 센터라는 것을 처음 만들고 지금 5년이 지났다. 크리스천 전문자격인증 기관인 제3의 인증기관을 세워 양교와 MOU를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규훈 목사는 “기독교 코칭(Christian Coaching)은 개인이나 그룹이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개인과 공공의 영역에서 모두 크리스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 낼 수 있도록 임파워링 하는데 그 중점을 둔 하나의 전문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WMU와 미주장신대의 기독교 코칭학 석사과정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미주 지역을 비롯해,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입학과 수강이 가능하다. 기독교 코칭학 석사 과정은 성서와 코칭, 크리스천 가족 코칭, 감성 리더십 코칭 스킬, 정체성과 크리스천 코칭, 크리스천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의 실제, 트리니티 영성 리더십, 영성 코칭과 경건, 기독교 상담과 코칭, 마케팅 PR기반 비즈니스 개발과 파트너십, 선교와 크리스천 코칭, 코칭 슈퍼비전 등 모두 36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WMU와 미주장신대의 코칭 석사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는 석사 학위와 함께 IAC(International Associate Coach), IPC(International Professional Coach) 인증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졸업 후에는 비즈니스 코칭, 영성 코칭 등으로 기독교 관련 기관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 문의: (213)388-1000 월드미션대학교, (562)926-1023 미주장신대신학대학교
(박준호 기자)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김인권, 임원숙, 조현영, 지선민, 지용일 목사안수

세계복음선교연합회(총회장 김대성 목사) 목사안수식이 4일(토) 오후 2시30분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김수현 목사 인도로 시작된 목사안수식은 남윤희 목사(증경총회장)가 기도했으며 김대성 목사가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2가지(마 20: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안수식이 거행되었는데 안수례, 공포 및 안수증 수여를 총회장이 했으며 이재현 목사(증경총

회장)가 권면 및 축사했으며 이날 안수받은 목사 대표로 김인권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김진광 목사(증경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자는 △김인권(필리핀 선교사), △임원숙(CGN America 방송선교사), △조현영(IAMC교회), △지선민(인도네시아 선교사), △지용일(또감 사흙한인교회 중국선교사)이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생과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 및 학위수여식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6일(월)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최규남 총장은 “오늘 학위를 받은 자들은 첫째 복음주의 신학자가 되고 두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현완 교무학장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이병구 학생학장이 졸업생 프로필을 소개했으며 이사장, 총장, 총회장상 등 성직우상수 수여, 최규남 총

장 권면, 한기홍 이사장, 황성주 박사 축사, 문상철 교수 함원구 동문회장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어 졸업생 일동과 김정호 졸업생이 특송을 불렀으며 최규남 총장이 공포 및 감사패를 증정한 뒤, 오윤정 졸업위원장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최규남 총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 직전에 열린 예배는 백성원 교수가 기도했으며 제임스 조 교수가 성경봉독, 신승훈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히 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교차문화 석사 1명, 기독교상담학석사 7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10명, 목회학석사 13명, 기독교상담학 학사 1명, 신학학사 14명이 받았다.

(박준호 기자)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앤드루세스크 한국일보 손수익 기자 제공)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100주년 감사예배

“앞으로 100년, 2세 양육과 복음전파에 전력 할 것”

1914년에 창립된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정현섭 목사)가 지난 6월 5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훈탁한 세상에 ‘복음의 등불’로서 날 성령강림 및 교회창립 감사주일을 맞아 목회기도에 나선 정현섭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탐과 눈물로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 하며 앞으로 100년은 믿음의 2세를 키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줄 것”을 구했다. 정현섭 목사는 “지난 백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오클랜드 교회도 다른 초기 한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한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독립운동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국의 독립과 민족운동에 힘쓴 결과로 오클랜드 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조성학 장로를 비롯 2대 임정구 목사, 도산 안창호의 사촌인 안영호, 노신대, 여성운동가로 독립 자금 모금에 앞장선 김자혜 등이 한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김낙인 목사 은퇴찬하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낙인 담임목사 은퇴찬하예배가 26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626)965-9191

열매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부흥회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창립 21주년 기념 부흥회가 26일(주일) 오전 8시30분과 11시30분에 갖는다. 이번부흥회 강사는 스티브장 선교사(이라크 선교사)이다.

▲ 문의: (323)737-3009, (213)215-8523

나성영락교회 버스드라이버 모집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버스드라이버(파트타임)을 모집한다. 자격은 Class C Commercial이나 Class B면허증 소지자이며 이력서를 작성해서 교회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323)227-1400

CPC크리스천 아카데미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여름방학동안 자녀들을 위한 2022 CPC크리스천아카데미를 개강한다. 일정은 6월27일(월)부터 8월12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주간이며 대상은 킨더-8학년까지이다. 내용은 Math, Reading, Writing, Basketball, Art, Music 등이며 등록은 교회홈페이지(<http://www.ilovecpc.com/>)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 문의: (650)307-0569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월 정기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월 정기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월 정기 조찬기도회 열려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보급 필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4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6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에서 김경신 목사(겨렛말 남북 병행 성경 편집인)는 “가장 큰 은사는 은총입니다”(고전 13:1-13)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경신 목사는 “우리는 은사를 주신 분 보다 받은 은사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 사유화이고, 복음을 사유화 할 때 교회는 변질되고 이익 집단화 된다”고 지적했다.

설교에 앞서 김경신 목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북한은 70여 년 분단된 후 이념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성경번역이 필요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보급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 날 합심기도에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을 위해 그리고 전쟁의 아픔과 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OC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복음을 위해 낮선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김경신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연합회는 하반기 행사로 8월 광복절기념 교계연합예배 및 교회 성가제를 8월 14일(주일) 오후 6시에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고,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는 10월 24일(월) Los Coyote CC에서 연다고 알렸다.

자세한 것은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에서 볼수 있다.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기사제공: OC전도회연합회)

새생명선교회 장학생모집

캐나다 및 미주지역 대학생, 마감 6월 30일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이사장 박경우)가 미주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총 100명(학생 1인당 1500달러)을 선발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미국내 4년제 정규 대학(신학대학원 포함) 재학생과 가을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1일부터 등록을 받아

오는 6월 30일에 마감한다. 가을학기 졸업 예정자를 비롯한 캐나다 등 미주 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신청 방법은 새생명선교회 웹사이트(www.newlifemissionfdn.org)에서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첨부 서류로는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수입 증명서(학부모 세금 보고서) 신앙 간증서 추천서(출석 교회 담임 목사) 등이 필요하다. 새생명선교회 박희민 목사는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 가정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며 “한 달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과 발표는 오는 8월 6일 새생명선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선발자에게 공지된다. 새생명선교회는 2004년 설립되어 그동안 중국에 15개, 과테말라

에 5개, 동티모르에 1개, 몽골에 1개의 교회 설립을 지원하였고 중국, 과테말라, 몽골, 필리핀, 루마니아 등 현지에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3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고아원 건축을 지원하였다. 현재 미국내 기독교 단체 미주선사화운동본부, 프론티어 벤처스, 씨드선교회, KCMUSA를 후원하고 있다. 새생명선교회는 지난해 7월 소형교회 지원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형교회 목회자 50명을 선발하여 각각 1천불씩, 총 5만불의 격려금을 지원했다. 또 같은 해 9월 4년제 정규 대학(신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 1인당 1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미주지역 한인 작은교회 45개 교회를 선정, 각각 1,000달러 총 4만5천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 문의: (213)365-9188 (정리: 박준호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속 교회는 평화의 선포자로 서라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재건과 희망을 심는 일에 앞장서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연 정책포럼에서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반길주 인세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규범을 파괴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불의한 전쟁 앞에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갈등의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범을 파괴한 러시아의 행동을 지적하는 걸 정치의 영역에만 맡겨두서는 안

된다"면서 "힘에 의해 국제 규범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해 교회가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아픔의 땅에 희망을 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조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독일교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짚었다.

그는 "정당 전쟁론을 비판하면서 '서구의 주류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정당 전쟁론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됐다'고 잘라 말했다.

정당 전쟁론은 양심의 가책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전쟁이 있다는 이론이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기원전 주장했는데 몇 가지 기준에 들어맞으면 정당 전쟁이라고



봤다. 훗날 교부 암브로시우스나 오거스틴과 아퀴나스, 루터 등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주류 기독교회가 지지하는 전쟁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 교수는 "역사상 정당한 전쟁이라 부를만한 전쟁을 찾을 수 없다"면서 "모든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 기인하고 많은 경우 전쟁을 신앙으로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신앙은 이데올로기화되고 평화 대신 갈등과 분열이 찾아온다"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교지서 순직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 32명의 헌신 기려

기감·광림교회 '추모의 벽' 제막식

고(故) 경혜숙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해는 1989년이었다. 2년 전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 보냈던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 고인은 남아공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에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심한 위궤양을 앓기 시작했지만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06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딸인 이미경(대화교회) 목사는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매일 새벽이면 남아공의 흑인들을 위해 2시간씩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팠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

각해보면 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잠시 품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천사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에서 열린 '추모의 벽' 제막식이었다. 선교센터 입구에 만들어진 이 벽에는 고인을 비롯해 선교지에서 순직한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 32명의 이름과 이들의 선교지, 파송교회 등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목사는 "어머니는 아프리카인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도 천사와 같은 분이였다"며 "잊힌 선교사들을 다시 기억해주시길 감사하다. 모든 선교사를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 역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추모의 벽은 기독교대한감리

회(기감)와 광림교회(김정석 목사)가 힘을 합쳐 세운 기념물이었다. 제막식에서 설교자로 나선 김정석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돼 한국 감리교회는 이제 80개국에 약 14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볼게 된다"며 "32명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다. 이들의 정신을 우리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센터에서는 이날 추모의 벽 외에도 기감에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림비,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비 제막식도 열렸다. 로비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올해 순직 120주년을 맞은 헨리 아펜젤러를 추모하는 명판도 내걸렸다. 기감은 앞으로도 선교지에서 순직한 선교사가 생기면 추모의 벽에 그 이름을 새길 계획이다.

예지연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대면예배 금지 자체에 대해 법원이 부당성 인정한다 첫 사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낸 교회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교계에서는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지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예지연은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판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

러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즉각 반발했으며 일부 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되기도 했다.

교회들은 이런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 행정2부가 기각한 게 대표적이다.

일부 받아들여진 신청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해 7월 서울 7개 교회와 목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140년 전 한미수교, 하나님 섭리와 은혜"

코리아네이버스 13일 서울포럼... 다음 달 뉴욕과 워싱턴에도 포럼 계획

KHN코리아네이버스(이사장 이정희 목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포럼을 열고 한미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분석했다. 서울포럼에 참여한 7명의 학자는 한미수교가 선교 경제 안보 정치 등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소망했다.

2015년 미국 사단법인으로 세워진 KHN코리아네이버스는 국제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단체다. 이날 서울포럼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과 뉴욕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대학과 협력해 기독교 관점을 뛰어넘어 한미 전문 학자를 섭외했다. 미국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기조 강연에 나선다.

최명덕 코리아네이버스 회장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어느 나라 관계보다 중요하다.

포럼 이외에 미국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식과 예배도 드리면서 한미교회는 물론 한미사회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포럼에서 구춘서 한일장신대 교수는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평가했다. 구 교수는 "미국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인들의 인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병원과 학교를 설립해 환자를 치유하고 대중을 교육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역을 나눔으로 미국발 한국교회 분열의 싹을 틔고 교회를 정치화되고 반지성적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한미수교와 선교 역사는 인간의 비극적 본질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로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계승하고 부정적인 것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끼친 미국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 군정은 우리나라에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기초를 확립했다. 또 1946~1978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60억 달러는 정부의 예산과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개방 초기 한국은 노동집약적 수출품을 미국에 수출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췄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절약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 통신 항만 공단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병진 경희대 교수는 "장기간 원전건설을 하지 않아 산업생태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원자력 부문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했으며 이규영 서강대 교수는 "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위한 전략과 전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韓 복음주의 현재와 미래 세속화 물질 잘 막아내...

"로잔대회, 교계 변화 전기",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등 대응"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복음주의가 '로잔 운동' 등을 통해 이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국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3대 교회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조속히 통합을 이루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음주의'란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 가치를 복음으로 여기는 신앙을, '로잔 운동'은 자유주의 신앙이 지배하는 교회의 세속화 속에서 태동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말한다.

김영환 송실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세계 복음주의 운동은 '세계복음연맹(WEA)'과 '로잔 운동'이라는 우산 아래 다양한 복음주의 교단 및 선교 단체들이 구성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국 복음주의의 현재"와 관련해 "WEA는 아시아와 세계 선교 운동에도 상당히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 복음주의는 일부 분리주의자들의 탈퇴나 고립화에 대해 자체를 호소하고, 세계 교회 단체와 교류를 지속하도록 국제적 교류·협력·연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이슬람의 도전과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는 등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 복음주의의 미래"와 관련해선 '한교총·한기총·한교연의 조속한 통합'과 'NCCK와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복음주의를 자칭하는 세 그룹이 10년 동안 합하지 못했다 때문에 보수 기독교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열 10년에도 통합은 요원하다"며 "독선과 고집, 명예욕을 버리고 오로지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NCCK와 관련해선 "동성애 반대와 타종교 선교 필요 등에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은 중요한 대립이지만, 기후변화와 환경보존, 핵무기 폐기 등은 공동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며 "다름보다는 공통분모를 강조하며 연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고,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오만한 태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의 말은 최근 일부 복음주의 교회가 보이는 극단적 분파주의의 단면을 지적하고 복음주의 정신에 연합과 협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평가다. 최형근 서울신학대 교수는 '로잔 운동'을 정의하고 향후 불러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로잔 운동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서구 문화 격변기에 형성된 에큐메니컬 진영의 세속화와 인간화라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자들의 메시지는 지난 10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서울영동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세미나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주의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길교회에서 '지역교회 파트너십&섬김마당' 열여

어려움 겪고 있는 140개 교회에 지원금 전달

경기도 남양주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 이광수(61) 목사와 이경숙(54) 사모는 코로나19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었다. 시 각장애인인 이 목사의 교회는 성도 30여명 중 3분의 1이 장애인이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헌금이 줄어 월세가 밀렸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갈 곳을 잃은 게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정부의 식사 급지 방침으로 교회마저 그들을 섬길 수 없어 안타까웠다. 또 장애인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아 가족들이 집에서 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서 교회의 사정이 조금씩 나아

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때 도움이 손길이 찾아왔다. 신길교회(이기용 목사)로부터 후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목사는 "지원금으로 가장 먼저 월세부터 낼 것"이라며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는데 우리 같은 교회를 생각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열린 '지역교회 파트너십&섬김마당'에서 참석자들이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날 신길교회는 임마누엘교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개 교회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전달했다. 작은 교회와 상생을 위해 4년째 진행하는 행사다. 이기용 목사는 "큰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보다 모든 교회가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넉넉한 것은 아니

지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사역"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며 잘 키운 성도가 큰 교회를 찾아 떠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때도 좌절하지 말고 한국교회의 모판으로서 훈련된 성도를 파송한다는 자부심을 갖자"고 격려했다. 지원금은 신길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았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낸 부부도 있었고 노후 자금을 가져온 87세 어르신도 있었다. 이 목사는 "처음엔 100개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성도들의 헌신으로 140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재정이 모였다"며 "액수보다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 이 헌금이 작은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데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 봉투에는 헌금한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있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받은 것 이상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어르신 '사랑의 한끼' 계속 이어갔으면..."

18년 이어온 무료급식 중단 위기

지난 9일 오전 7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의 한 골목길. 낡은 상가건물 1층에 빛바랜 글씨로 '벨엘나눔공동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급식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평

균 75세.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생활비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하루 한끼 식사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무료급식소 벨엘

나눔공동체 대표 강정자(63) 목사의 설명이다.

강 목사는 2004년부터 18년 동안 무료급식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엔 네 차례다. 그동안 식판에 음식을 담아 식사를 제공했다가 지난 2월부터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매일 평균 80명 정도가 이 곳에서 '사랑의 한끼'를 얻어가고 있다.

오전 10시 30분. 얼마 전 심장수술을 한 강 목사는 다소 불편한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도

시락을 건네줬다.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밝게 웃으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강 목사는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아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 떠올리던 그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성과보다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더 값진 열매 같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보니 자주 다투

세요. 그런데 '쌈뎀'이었던 분들이 몇 년 동안 따뜻한 식사를 대접 받으시면서 부드럽게 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급식소 봉사자로 나서서 식사재를 옮기거나, 직접 양파나 마늘을 다듬어주기도 한다. 명절엔 이웃들과 나눔 송편을 빚기도 한다. 그런 이들이 20명 가까이 있다고 강 목사는 귀땀했다.

하지만 올 초, 강 목사의 섬김 사역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건물 주인으로부터



터 급식소 공간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부랴부랴 급식소 이전 장소를 찾아 나섰다. 멀지 않은 곳에 적합한 곳을 찾아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다.

선교의 창 (195)

송중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사 파송의 적정 연령

세상만사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 매사에 때를 안다는 것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일 일지라도 실기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선교사로 준비할 때가 있고 장도에 오를 때가 있다. 만일 누군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때가 좋은가? 이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교적 출발은 빠를수록 좋다. 나이 들어 선교지에 가면 잊음이 있기도 하지만 언어 습득과 문화적응에서 치명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가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기 때문이다. 팔팔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인생의 단 물이 빠진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서구 선교사회는 대체로 선교사 허입연령을 35세로 제한하고 있다.

한반도에 파송된 개척 선교사들의 연령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는 언더우드 선

교사의 기도문 일부이다. 미국 장로교 파송을 받은 그는 감리교 파송의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한반도의 제물포 항에 입항했다. 이 날은 뜻깊은 부활절이었으며 한국 개신교 선교역사의 공식적인 원년이다. 이때 언더우드(Horace

한 공헌을 할 수 있었을까?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연령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는 1793

Livingstone)은 1840년 그 나이 27 세 때 런던 전도협회의 의료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로 떠났다. 중국 선교의 대부 격인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21세가 되던 1853년 9월 19일 중국을 향해 떠난다. 그는 6개월의 항해 끝에 22살 되던 해인 1854년 3월 1일에 상해에 도착했다. 당시 상해에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중후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에 비해 테일러는 선교사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역사가 흐른 지금 테일러의 이름만이 반짝거린 이유는 무엇인가? 나이 차이이다. 즉, 세계 선교역사에서 별처럼 위대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에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인 선교사들의 파송 연령

한인세계선교의 커다란 난점 중 하나는 선교사 파송 연령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한국세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전문인 선교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교사 지원자 고령화 현상과 선교사 증감률의 둔화는 현재 선교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경력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시니어 선교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동력을 얻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젊은 선교 동력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지 심하게 염려되는 부분이다.

선교사 파송연령을 앞당겨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한인 세계 선교에 있어 파송의 때를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첫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능한 빨리 보내도록 해야 한다. 그간 가는 자나 보내는 기관에서는 준비 명목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준비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최고의

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 후 군대와 신학을 마치고 나면 30대가 훌쩍 넘어 버린다. 나아가 목사 안수와 더불어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비(Fund)를 모금하다 보면 출국 날자가 한정 없이 지체되기 일쑤다. 그러나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는 이런 면에서 자유로우며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나아가 저들은 선교지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져 신분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

맺는 말

한인 세계선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국내, 외의 산적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특단의 대책과 희생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적 미래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그중 하나 선교사 파송 연령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포삼열,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저드슨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청년의 때에 선교사로서 장도에 올랐다. 이처럼 선교사로서 출발은 거칠 것 없는 20대 때가 이상적이다. 생각해보라. 30, 40대의 나이에 가족을 동반한 체 타 문화권에 뛰어 들면 그 몸이 얼마나 무거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역적 기대치는 떨어지지 마련이다. 그러나 꼭 젊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교적 열매란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의료분야 컴퓨터, 엔지니어, 교수 사역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경력과 실력을 가질수록 좋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부르심의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선교사로 소명이 확실함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춘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육신의 소유를 따라서 할 것 다해보고 기력이 쇠할 때야 선교사로 나서는 자는 그 동기부터 의심해봐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jsong007@hanmail.net

인생 사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선교사로서 헌신의 때는 빠를수록 좋다.
선교지는 퇴역군인 같은 사람들이 가는 땡 처리장이 아니다.

Grant Underwood)는 26세였으며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는 27세였다.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 Moffett)은 1889년 4월 15일에 미국 북 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다음 해인 1890년 1월 인천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 마포강변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나이 26세였다. 그는 1904~1924년까지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주님의 일꾼들을 양성했으며 선교 46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저들이 만일 인생 후반의 나이에 내한했다면 언어와 문화적응은 물론 이토록 혁혁

년 32세의 나이에 영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나갔다.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침례교 선교사인 에도나 럽 저드슨(Adoniram Judson)은 1812년 2월 5일 그 나이 23세 때 미국 조함 교회 소속의 인도 선교사로 임명받고 인도 캘커타에 입국하였다. 하지만 그는 동인도회사와의 갈등으로 선교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때 저드슨은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침례교로 교파를 옮긴 후 1813년 당시 선교사가 없던 버마 랑군에 입국해 그 나라의 영적 조상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 한국교회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67개국에 2만 2,21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여성 선교사가 전체 51.9%로 남성 선교사보다 많았고, 독신 선교사 성비 역시 여성이 많았다. 선교사 연령 분포를 보면 40, 50대 선교사가 전체의 6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20, 30대가 없던 버마 랑군에 입국해 그 나라의 영적 조상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준비는 기본과정만 끝낸 후 빨리 선교현장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선교적 도전을 하며 헌신자를 일찍부터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미국 군대의 모병관처럼 각 교단과 단체들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는 비전트립 등도 대학생 위주에서 중, 고등부, 초등부 시절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도 단순한 봉사자원을 넘어서 선교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는 목회자 선교사에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위주로 나가야 한다. 사실 목회자 선교사가 되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0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2)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로마 편에 섭니다. 친 로마적 그의 행동에 로마 정부는 권력으로 보상합니다. BC. 47년 율리우스 시저(Julius Caesar)는 안티파테르에게 로마 시민권과 유대 지역 총독 자리를 줍니다. 헤롯 가문의 로마 정권과 밀월이 시작됩니다.

그가 유대를 차지한 다음 자신처럼 야심만만한 아들 헤롯을 갈릴리 지역 통치관으로 임명합니다. 영리한 헤롯은 권력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하스몬 왕가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하스몬 왕가에 대한 열등감을 정리하고 로마 실력자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헤롯은 천재성이 반복되는 정치 감각과 근성으로 로마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지켜주는 로마 후원자(주군)의 승패와 상관없이 권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헤롯은 주군이 망해도 자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왕은 처음엔 카시우스를 섬겼고, 카시우스가 안토니에 패하자 안토니를 따릅니다. 안토니가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

명했습니다.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 헤롯은 안토니를 돕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쯤 되면 헤롯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왕이 복장을 해체하고 일반 평민 복

장을 하고 카이사르(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상소합니다. 헤롯 자신을 구한 상소(上訴)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저를 세워준 안토니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패했습니다. 저는 왕관을 벗어 던지고 오직 폐하의 덕만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

온 신실함과 의리를 바꾸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남은 생명 황제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거칠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헤롯의 말을 듣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답게 대답합니다. “좋다! 그대를 살

려 주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고한 왕의 자리를 보장 해주겠다. 대신 그대는 안토니를 섬겼듯이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를 따르도록 하라!” 물론 이것도 거칠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천부적 감각과 집념으로 유대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든든한 후원으로 유대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C대표)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로마 지지를 받기 위해 유대인 지지가 필요했고, 유대인 지지를 받기 위해 로마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일평생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모든 치적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었습

니다. 신약신학자 임진수 박사는 헤롯의 통치기간을 3기로 나누며 왕권을 세워가는 헤롯 대왕의 삶을 추적합니다. 임박사의 글을 거칠게 간추립니다. 먼저, 헤롯의 1차시기(BC 37~27년)로 권력 강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헤롯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왕권찬탈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둘째, 2차시기(BC 27~13년)

로 건축사업 기간입니다. 왕권 강화에 성공한 헤롯은 건축에 몰두합니다. 사마리아를 헬레니즘 도시로 재건하고 아우구스투스를 경외하는 의미로 세바스테(라틴어 Sebaste=Augustus)로 부르며 황제 신전을 세웁니다. 12년간 공사로 건설한 국제 해양 도시는 황제에게 헌정하며 ‘가이사랴’로 부릅니다. 헤롯의 대표적 건축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9년간의 공사로 예루살렘성전은 헬레니즘 풍미 가득한 건물로 거듭납니다.

셋째, 3차시기(BC 13~4년) 유혈숙청 기간입니다. 헤롯 왕가의 숙청의 역사는 피비린내 납니다. 헤롯은 장모, 처남, 아내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죽입니다. 권력을 빼앗길 것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헤롯들이 탄 길로 돌아가자 헤롯은 광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근방 지역의 영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마 2:16-18).

헤롯의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 모함 그리고 처형으로 불행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근동연구소 소장인 배리 벨젤(Barry J. Beitzel) 박사는 ‘헤롯은 10번 결혼했는데 모두 정치적인 결혼이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의 인생은 불행한 권력자의 전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해에 죽습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가는 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나고야 난잔(南山)대학에서 신약학 강의를 하는 야누스 크시킴 박사는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아들 안티파테르의 사형을 로마 황실로부터 받고 집행했음을 지적하며 헤롯의 잔인성을 강조합니다.

헤롯의 건축물과 초대교회 역사 연구에 몰두하는 아일랜드 학자 바바라 메리(Barbara Mary Denise Bergin)는 건축가 헤롯을 강조합니다. 헤롯은 로마와 유대의 지지를 얻으려고, 자신의 능력 과시용으로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처남, 장모,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며 지키려 했던 그 권력욕의 끝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은 악하고 저주스러운 헤롯 대왕의 삶이 그의 자손들의 삶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캠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그들이 받을 상급 (계7:16) 찬390장

본 절에 택함받은 백성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첫째, 그들은 주리지 않습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요 10:10)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천상 세계의 풍성한 생명은 오직 어린양 자신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그 백성은 그의 충만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엡 3:13) 둘째, 그들은 목마르지 않

습니다.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그의 백성은 (고전 10:31) 하늘의 생명수로 영원히 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또한 그들은 모든 해가 되는 기운에도 상하지 않습니다. 자체의 욕구를 채워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모든 위험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요 10:25-26에 나온 성자와 성부의 절대 보호가 영원히 실현된 복을 누립니다. 그 귀한 상급에 참여한 은혜를 힘껏 찬양합니다.

화 그들이 받을 상급의 근원 (계7:17) 찬210장

성령은 앞선 세가지 상급이 흘러나오는 출처와 그의 활동을 밝혀 주십니다. 첫째, 그 상급의 출처 - 목자되신 어린양 자신이 모든 복과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성부로부터 받은 부요를 자기의 몸인 교회에 전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영원한 영생수의 원천입니다. 둘째, 그 목자의 일하심 - 은혜의 원천이신 그분은 자기 백성이 만족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샘으로 인도

하는 어린양의 수고는 구속이 완성된 세계에도 여전히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그 은혜의 적용은 아주 더욱 구체적입니다. 어린양 목자는 온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성령의 역사로 택한 백성 하나 하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들의 모든 주를 위한 수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신실하게 주를 섬깁니다.

수 일곱째 인 (계8:1-5) 찬353장

구속을 상징한 일곱째 인을 어린양이 때릴 때 그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그 일이 점점 강해지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선명해짐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의 기도 향연의 응답으로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3-4) 성도의 기도는 구원의 도구이며 동시에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둘째, 향연은 교회의 거룩한 예배 (찬송, 선행 그리고 구제의 섬김 하

13:15-16 참조)를 포함합니다. (3-4) 셋째, 이 향연이 불로 바뀌어져 이 땅에 부어져 구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5) 구속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불행자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경륜을 만드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심은 우레, 음성, 전개 그리고 지진으로 나타남은 의로 마쳐지는 구속을 강조합니다. (히 12:26-27참조) 더욱 어린양의 백성으로서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목 첫째 나팔 (계8:6-7) 찬512장

새로운 상징으로 나타낸 것은 앞선 인을 때릴 때 일어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방면에 구체적으로 세워짐을 보입니다. 첫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옴 위로 부터 임하는 것으로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능력으로 그의 의를 세우십니다. 구속을 탄식했던 만물은 당분간 의를 이루는데 사용됩니다. 피와 우박과 불은 모두 맹렬한 심판을 상징함으로 자연재해를 통하여 의를 세우심을 강조합니다. 둘

째, 그 결과, 땅 삼분의 일이 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는 동식물과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는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셋째, 수목의 삼분의 일과 각종 푸른 풀이 타 버립니다. 이것은 불행자로 두려워하여 회개에 나가게 하려고 나타났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해로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이 두려운 일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 경건 생활을 힘씁시다.

금 둘째 나팔 (계8:8-9) 찬469장

둘째인, 세째인 그리고 네째인이 열릴 때 일어난 상징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8) 큰 산과 같은 불덩이는 하늘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더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둘째, 그 날로 바다의 생물의 1/3이 죽는 비참함이 나타납니다. 모든 생물의 주식의 보고를 불로 태

워짐으로 오는 치명적인 죽음은 천재지변의 피해를 생각해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 현상을 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셋째, 쓴 물로 사람들이 죽임당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신 어린양은 불행자의 목마르게 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 땅에서 불행자들로 지옥 고통을 알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 의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토 셋째 나팔 (계8:10-11) 찬434장

계속되는 구속의 성취는 어린양의 의를 온 천하에 나타내심으로 나타나는 본문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첫째, 큰 별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영적 권위가 상실됨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햇빛처럼 타는 별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은 불가항력적 능력으로 심판을 통한 의를 세우십니다. 둘째, 강 1/3과 물 샘이 떨어져 삶의 근원을 파괴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어린양이심을 의도

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어린양이 생명인지 모르는 불행자의 받을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셋째, 많은 사람이 쓴 물로 죽습니다. 여기에 별이 물에 떨어져 쓴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어린양이 의를 세우시는 지혜를 온 천하에 나타내십니다. 먹고 마시는 기본 단위마저 의가 없거나 귀한가를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린양의 구속 의를 힘써 전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4)



윤임상 교수
(웰드미선대학교대학원)

호라티오 스페포드와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철학적으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로마식 Pax Romana 다른 하나는 히브리식의 Shalom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Pax 와 Shalom을 모두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식 파스와 히브리식 샬롬의 평안은 내면에서 비추어지는 의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책에 보면 “로마식 파스는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 그리고 히브리식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일어나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힘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얻어지는 평안을 파스 로마나 라고 표현한다면, 샬롬의 평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모든 조건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 이 샬롬의 평

갑자기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나는 서둘러 네 자녀를 갑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네 자녀(Annie, Maggie, Bessie, Tanetta)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시거나, 우리에게 닥친 위험을 잘 견디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약 12분 이내에 이 선박은 4명의 호라티오 자녀들을 포함하여 226명의 승객을 대서양의 어두운 바다 아래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점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선원이 잔해 위에 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는 예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배에 태웠고 그들은 9일 후 웨일즈 카디프에 상륙한 또 다른 큰 배에 실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혼자 살아 남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Saved alone, what shall I do?)”라는 문구가 적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짧은 전보를 남편 호라티오에게 보냈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 사고 선박 회사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정의를 알았던 신앙인

안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시를 썼던 호라티오 스페포드(Horatio Spafford; 1828-1888)는 당시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예나(Anna)는 1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고 교회에서 자선 활동과 봉사의 삶을 살며, 신실하게 그리고 유복한 삶을 영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1871년 그들 가족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 성홍열(Pneumonia)로 네 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 (Great Chicago Fire)로 인해 소유 재산의 대부분이 소실 되었습니다. 그들은 1873년 다시 비극이 닥칠 때까지 2년을 버텼습니다. 처해진 고통을 만회하려고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페포드는 가족과 함께 할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에 머물 필요가 있어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1873년 11월 21일, 프랑스 정기 여객선인 빌 뒤 아브르 호(SS Ville du Harve)에 호라티오의 부인 예나와 네 딸을 포함,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출항한 지 약 4일 만에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빌 뒤 아브르 호는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철제 선박인 락크 에른(Loch Earn)과 충돌했습니다.

제공한 배를 타고 호라티오는 전보를 받은지 사흘 후 사고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슬픔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온몸이 마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1명의 자녀도 아닌 4명의 모든 딸을 잃은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좌절감 속에서도 의식 할 여지없이 영감을 받아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마음을 돌리며 고통을 저항하고 평안을 쟁취하여 (Peace Making) 찬양으로 고백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는 분명 요한 저자가 기록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정의를 바로 이해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화로운 상태 (Peacefulness)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평화를 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조건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쟁취할 수 (Peace Making) 있기 때문입니다. (16면으로 계속)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회원소성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로교회,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독교센터 (김중철 원장), 뉴저지저인사 (대표: 김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프랑스 마르세이유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2년도 벌써 반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일들도 큰 줄기를 이루며 흐르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기간에도 참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소식입니다.

1. 동역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무슬림을 위한 전도 책자의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동역자님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 책자는 현재 불어로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에 항구에서 성경 전달과 함께 소책자를 무슬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되고 있고, 불어와 아랍어 번역이 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 전도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 부분(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는 여전히 무슬림과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게 되면 무슬림 전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이 불어보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역이 되고 나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리 전도를 통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 부분(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는 여전히 무슬림과 논쟁이 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게 되면 무슬림 전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이 불어보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역이 되고 나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고,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도록, 번역일로 도움을 주시는 분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항구 사역을 다시 진행합니다. 여름에 항구에서의 성경 전달 사역을 다시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북부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배들이 거의 끊겼고, 지금은 조금씩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배들이 운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부 아프리카로 성경을 전달하는 항구 사역은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적인 체력이 요구됩니다. 새벽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무슬림들과의 인연도 많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심하고, 아주 다양한 일과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성경을 전달하면서 모욕을 받기도 했지만, 무슬림들 앞에서 10분 정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매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항구에서 성경 전달을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항구 사역을 계획하면서 전도 소책자가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지만,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내려놓고 있

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로 가는 무슬림들이 이곳에서 각자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24시간-36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소책자가 만들어지면, 항구에서 책을 나누어 주고, 무슬림들이 배에서 소책자를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국가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군가 또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책자는 십 수년간 무슬림을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와 직면하였던 어려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무슬림 전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좋고 멋진 도구,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었



면 좋겠습니다.

3. 거리 전도 소식입니다. 거리 전도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2-3개월 사이에도 불과 몇 명이지만, 알제리와 튀니지의 무슬림들이 또 아프리카의 무슬림 난민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6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무릎으로 열방을 섬기는 이야기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개신교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침략해서 참혹한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SEED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들과 신학교 그리고 루마니아로 일시 피신한 전쟁 난민들을 위한 생필품 전달을 위해서 후원자들과 후원교회들에게 동참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구호헌금이 모금되어 우크라이나 현지의 침례교 교단과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루마니아에 아직도 거주하는 백성들과 루마니아와 체코로 피신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생필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이 없어서 구호품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상황을 접한 한 교회는 구호품 운송에 필요한 두 대의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선교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지구촌의 많은 영혼들을 싸

매어 주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날이 곧 임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하와이 목회자 선교세미나 (3/29-4/3)

지난 3 월말에 하와이 한인교회 목회자들 부부를 초청해서 저는 선교세미나를 임승욱 사모는 재대선화관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역사를 가진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을 섬기며 SEED 선교회는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선교는 선교회가 하고 교회는 선교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적으로 전문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선교해야 한다고 교회 중심의 선교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교회가 이런 성경적 선교모델에 동참하길 기도합니다.

KIMNET 국제선교지도자포럼 참석

5 월 24-26 일까지 북미의 시애틀에 소재한 형제교회에서 진행된 KIMNET 국제 선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선교회로서의 SEED 선교회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보다 더 선교에 미친 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가 오길 기도합니다. 지난 5 월 2 일에 동부 버지니아에 소재한 272 에이커의 국제선교센터(SEED Mission Center)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개원예배를 드렸습니다.

C 국 신학교

2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C국 정부 온라인 사역 규제로 인해서 현재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모두 카메라를 끄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갈수록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4 과목을 이수하면 2 년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됩니다.

현재는 올 해안에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졸업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C 국 정부가 집행

하는 까다로운 여행규제로 한국방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 국의 여행규제가 완화되어 한국에서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학교 관련한 또 하나의 기도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언급했던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석사학위 인증 과정을 잘 마쳤는데 ATA 협의회로부터 졸업학점을 현재의 42 학점에서 60 학점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현장에 풀타임 디렉터를 세우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두가지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제안들로 보이지만 겸손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신학훈련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 국 가정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신학훈련만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필요에 민감한 신학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 학교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버지니아 국제선교센터에서 6 월 20- 7 월 29 일까지 진행될 2022 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 학교에 8 units 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교적 묵상(Missional Reflections):

얼마 전에 아마존 창업자 Jeff Bezos 는 "10년 후의 아마존을 위해서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0 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다음의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님들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원할 것이고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과 신속한 배달을 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는 통찰력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지금까지 상식으로 인정받았던 관념들과 관습들이 통째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교의 전략에 도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은 너무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더욱 본질

에 충실하는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변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SEED 선교회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의 삶이 최선의 선교전략이며 기도가 선교입니다.)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과 선교관 겸용의 본부 공간, -성령의 불길기 타오르는 선교 기도모임들, -청년선교 헌신자들,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에게 파송교회를, -본부 사역을 잘 감당할 지혜와 섬김의 마음,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임태호 선교사(시드선교회 미주대표) ttrecon@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3>		<h4>뉴욕셋새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h4>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학원: 오전 10:00 화,토</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4>뉴욕양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4>뉴욕주안교회</h4>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3,5주)</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성경학원: 매주 토요일 오전 9:30</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1:50분 주일 3부 오전 11:50분 청양예배: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h4>어린양개척교회</h4> <p>담임목사: 유승혜 E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h4>은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4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2: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강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후 8:30(토)) 금요공포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회: 매일(토) 오후 7:3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월 14일(토) 아침 7:40 유,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h4>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선 선교사 1.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2. 임하늘-유신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내다 버린 쓰레기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다!

BBC,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쓰레기학'의 등장 과정과 의미 소개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한마디로,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바로 데이터인 것이다. BBC '퓨처(Future)'는 요즘 뜨는 '쓰레기학'을 소개한다(Garbology: How to spot patterns in people's waste).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된다. 가장 불편한 형태일지라도 말이다. 물에 흘러보내지거나,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이다.

소위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살살이 살피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노력 덕에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은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는 것이다.

'쓰레기학(garbology)'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쓰레기학을 과학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인물은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랫제다.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라는, 지금은 잘 알려진 연구 프로젝

트를 통해 랫제와 동료들은 에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했다. 매립지를 살살이 뒤져 쓰레기를 탐사하고 분류한 것이다.

또한 랫제는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 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텐젠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할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봉지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쓰레기학의 활약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훨씬 더 폐쇄적이며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국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 쓰레기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의 한 교수가 해안에 밀려온 북한의 상품 포장지 1400여 개를 수거해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포장지의 색이 더 풍부해지고 디자인이 세련스러워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상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나라에서 미묘하지만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폴란드 슈체친 대학의

고고학자 그레고르즈 키아지시스는 버려진 옛 소련 시절 전술 핵무기 기지 주변에 널린 쓰레기를 모아 연구했다. 이 비밀스러운 기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기밀 해제된 60~70년대 위성 사진뿐만 아니라 항공 사진 및 레이저 스캔 이미지와 같은 원격탐사기술로 기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쓰레기를 조사하면서 한 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키아지시스의 설명이다.

그곳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아주 일상적인 물품들이었다. 어린이 장난감뿐만 아니라 면도기, 립스틱, 마스크라, 분유봉지 등이 널려 있었다. 주둔부대의 가족들이 이곳에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레고 장난감과 같이 당시 비교적 고가의 장난감도 발견됐는데, 이는 공산주의 시절 일반 폴란드 시민들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를 통해 소련 장교들은 외화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버린 사람조차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곧 잊어버리며, 쓰레기는 사회에서 지저분한 것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스웨



덴 린넨우스 대학의 고고학자 레일라 파폴리-야즈니는 쓰레기 연구를 통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민들의 삶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폴리-야즈니는 테헤란 길모퉁이에 있는 쓰레기통 속 생활 쓰레기를 연구한 결과 지역 간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마약 사용이 빈번하다는 증거가 쓰레기통에서 많이 발견됐다.

또 다른 지역의 쓰레기통에는 신문이 유난히 많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불행한 중산층"이 많이 모여 살게 됐다고 한다. 적어도 하층민보다는 신문을 구독할 가능성이 큰 인구 집단이다.

실제로, 쓰레기에 관해선 주의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쓰레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쓰레기학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기에 매력적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쓰레기학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의 양과 복잡성에 대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쓰레기학자들은 쓰레기 더미를 애써 피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시간을 들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지 살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쓰레기학자들이다.

교회음악 이야기

(14면에서 계속)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안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기이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의무를 생각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최종 전 단계까지 최종단계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영화롭

게 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안 Pax Romana가 아닌 Shalom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존 파이퍼 목사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에서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모든 조건에서 평안을 쟁취하는(Peace Making)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호라티오 스펜포드는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기에 이 역설의 평안을 고백하여 찬송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iyoon@wmu.edu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하지만, 지속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다음날 만남 약속을 하지만, 장소에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더 이상 접촉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진심으로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무슬림 전도를 하면서, 정말 한 사람 무슬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며 사역하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동역자님의 기도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자님의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저희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 기도의 집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부 아프리카(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모로 타니아)는 이슬람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죽은 이후 가장 먼저 무슬림화된 국가들이고, 지금도 보수적인 매우 강한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프랑스가 북부 아프리카를 식민지 한 이후 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은 프랑스의 가장

큰 항구도시인 이곳 마르세이유를 통해 유럽의 많은 국가로 진출했습니다. 마르세이유는 90여 개의 모스크와 무슬림 기도처소가 있고, 100여 개의 코란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60%가 북부 아프리카 무슬림들입니다. 반면에 마르세이유는 항구에서 성경과 각종 선교 책자를 보내는 등... 북부 아프리카를 위한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95%는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부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이유는 북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입니다. 이곳에 강력한 무슬림 국가인 북부 아프리카와 마르세이유를 위한 기도의 초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선교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곳에 기도의 초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 무슬림을 위한 전도 책자를 위하여
- 2) 중지된 난민 사역이 열리도록
- 3) 항구 사역을 위하여
- 4) 거리 전도를 위하여
- 5) 마르세이유에 북부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의 센터가 세워지도록
- 6) 성민이와 성경의 건강, 진로를 위하여
- 7) 저희 가족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마르세이유에서 최독신 송수연 드림.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2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